금주의 법구–〈잡보장경〉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5월 18일) 2023년 7월 5일 수요일

대학생 포교 역량 상월결사로 모인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7월 6일 출범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학생회가 없는 대학에 불교학생회를 다시 설립하고, 지역마다 대학마다 지도법사의 활동을 장려해 대학생 불교활동이 새로운 인연으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에서 공개된 대학생 전법 비전 선언.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라는 각오가 침체된 한국불교를 회생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한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사단법인 상월결사(이사장 자승)는 오는 7월 6일 오후 1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지난 2월과 5월 조계종 포교원, 학교법인 동국대와 각각 대학생포교에 협력한다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조직 구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포교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월결사는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전법위원회 출범을 위해 TFT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이어왔다.

조계종 전국 24개 교구본사가 힘을 보태는 대학생전법위원회는 조직 구성부터 한국불교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를 갖췄다. 그만큼 청년층을 대변하는 대학생포교가 과거 대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승 스님을 고문으로 한 대학생전법위원회는 동국대 이사장(자문위원장), 조계종 포교원장, BBS불교방송 이사장, 조계종 총무부장, 동국대 총장, 동국대 의료원장을 자문위원회로 뒀다. 또한 전법위원회는 △지도법사 전법단 △지도교수 전법단 △대학생 전법단 △일반인 전법단 △정책기획단으로 구성했다.

전법위원만 500명.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대학별 불교학생회장을 비롯해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전국교법사단, 전국불교교육연합회 교장단, 각 대학 지도법사 등 사실상 교계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단체와 대학생 교류를 하는 모든 조직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서울과 경기, 인천, 영 · 호남, 충청, 강원, 제주의 모든 조계종 교구본사가 교구 전법위원회로 활동하며, 군종교구와 의료계열의 특수 분야와 예비 대학생을 담당하는 불교종립학교도 함께한다. 각 교구본사주지는 관할지역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출범식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KBS가 방영한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간의 기록, 특집다큐 '부처님과 함께 걷다' 영상 상영으로 시작한다. 이어 대학생 포교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포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후 자문위원, 지도법사, 지도교수, 학생대표, 일반인 대표에 대한 전법위원 위촉식이 진행되며, 대학생 전법 발원문 낭독과 전법선언이 이어진다.

서울 동국대 본관 중강당서
전국 24개 교구본사도 동참
지도법사 · 지도교수 등 구성
전법위원만 500명 규모 조직

위원회 출범 위한 TFT 운영
포교 현주소 · 우수사례 공유
발원문 · 대학생 전법선언도
"전국대학 불교학생회 육성"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전법위원회 출범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세대 포교 및 대학생 청년불자 집중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며 "각계각층으로 이뤄진 전법위원을 위촉해 전국 대학에 불교학생회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생전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총회에서 회주 자승 스님이 대학생 전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올해 1월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대불련 전 · 현직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생 전법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등으로 하나된 '붓다의 딸'들 전 세계 여성불자들의 교류와 화합이 장이 된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서는 50여 개의 다양한 워크숍이 열렸다. 혜모 스님과 한마음선원 청년회가 준비한 '연등제작과 행사를 통한 마음공부' 워크숍 동참자는 "연등을 만드는 내 자신도, 그 연등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두루 이롭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등을 제작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감동을 전했다. 〈관련기사 5면〉 글 · 사진=임은호 기자

샤카디타 세계대회 성료… 환경위기 극복 결의

6월 27일 폐막 "모두 행복한 시간"
'기후 환경 위기에 입장문' 발표
차기 대회 2025년 말레이시아서

전 세계 비구니 승가와 여성불자들의 축제,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5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6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3000여 여성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힘 모을 것을 약속했다.

폐막식에서 샤카디타 코리아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심각한 기후환경위기 시대에 세계여성불자들이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세가지 실천을 다짐했다.

입장문에는 △개인의 변화를 시작으로 사회 변화가 완성됨을 인지하고 대기와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한 참회 △부처님의 절제된 삶을 표방하는 소욕지족을 실천하고 2040 탄소중립의 국제사회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연 절약과 재활용을 실천하고 자연 에너지로의 전환 등 환경친화적인 삶 구현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모든 사회적 활동에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대회는 친환경대회로 기획돼 일회용 물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치러졌기에,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 담긴 입장문의 내용은 더 큰 의미를 더했다.



6월 27일 폐막식에서 본각 스님은 제19차 대회 개최국인 말레이시아에 대회기를 전달했다.

무대에 오른 샤카디타 코리아 공동대표이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5일 동안 모든 참가자들이 행복했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행복했다"며 감격했다. 그러면서 대회가 원만회향하기까지 힘쓴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19차 대회 개최국인 말레이시아에 대회기를 전달하며 다음 대회를 응원했다. 제19차 대회는 2025년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거행될 계획이다.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등 각국의 비구니 스님들도 무대에 올라 본각 스님과 초대 회장 카르마 렉셰 쏘모 스님,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전 회장인 텐진 빠모 스님 등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각 나라의 문화가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샤카디타 코리아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자국 생산품인 커피와 캐슈넛, 소정의 보시금을 선물해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세계평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뜻을 모은 비구니 스님들은 회향게를 봉송하며 끝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대만, 몽골, 티베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의식에서 3000여 여성불자들은 세상 속에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전 참가자들은 "샤카디타"를 함께 외치며 폐막을 선언했다.

한편 대회 후인 6월 28~30일에는 평창 월정사와 인제 백담사, 양양 낙산사 순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 영결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인사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6월 16일(음력 4월 28일) 입적하신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의 영결·다비식을 6월 21일 오전 11시 봉선사 청풍루와 봉선사 다비장에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찾아주셔서 역경보살이신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스님들 그리고 각계의 어른들과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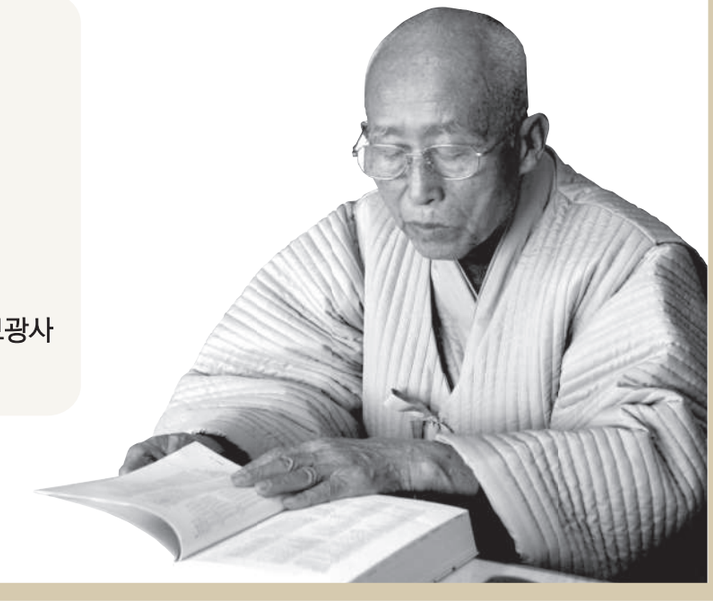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불기2567(2023)년 6월 29일 2재를 마치고

봉선사 문도일동 합장정례

월운당 해룡 대강백 추모일정

- 초 재 2023년 6월 22일(목) 10시 봉선사
- 2 재 2023년 6월 29일(목) 10시 봉선사
- 3 재 2023년 7월 6일(목) 10시 봉선사
- 4 재 2023년 7월 13일(목) 10시 봉선사
- 5 재 2023년 7월 20일(목) 10시 봉선사
- 6 재 2023년 7월 27일(목) 10시 파주 보광사
- 49재 2023년 8월 3일(목) 10시 봉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 봉선문도회 장의위원회
문의_봉선사 : 031-527-1956,1951 파주 보광사 : 031-948-7700~1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임기 시작

6월 27일 종로 법륜사서 고불 후 본격 행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임기를 시작하며 집행부 인사를 단행했다.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태고종이 대중 포교 종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태고종 총무원 청사인 서울 종로 사간동 법륜사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헌향하고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참배 후 집무실로 자리를 옮긴 상진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부장 및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상진 스님은 △사서실장 원오 스님 △기획실장 영범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교무부장 정안 스님 △재경부장 일공 스님 △문화부장 선광 스님 △홍보부장 서리 원심 스님 △사회부장 도휘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비구니부장 현담 스님 △전법사부장 심원 전법사를 내정했다.

총무 · 교무 · 재경 · 규정 · 전법사 부장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유임됐으며, 사서 · 기획 · 문화 · 홍보 · 사회 · 비구니 부장은 새로 이름을 올렸다.

국장단으로는 △사서국장 일묵 스님 △교학처장 철오 스님 △총무국장 정각 스님 △교무국장 진광 스님 △규정국장 도우 스님 △재경과장에 시암 스님 △한국불교신문 주간 승한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법무실장에 홍창수, 문사팀장에 인용민, 정책특보에 이상곤 씨를 각각 임명했다.

이후 상진 스님은 종회 인준을 앞두고 있는 재경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비롯해 새로 구성된 제28대 집행부 스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부 · 국장 스님들에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연임한 총무부장 · 규정부장 등에게 "앞선 호명 스님 원장 당시에 소임을 잘 살아주셔서 다시 임명하게 됐다. 종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임명된 사회 · 홍보 · 문화부장에게는 "그간 태고종에는 대사회적 사업과 종단 홍보, 행사 의전에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태고종이 사회를 위한 실천사업과 종단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종단 행사가 여법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부장이 기틀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6월 27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집행부 인사 단행 직후 가진 인사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부국장 인사… "소임 최선" 당부
"태고종, 대중포교 종단으로 발전"
오는 7월12일 이 · 취임법회 예정



상진 스님이 법륜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헌향을 하고 있다.

임명식 직후 상진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태고종을 '포교종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상진 스님은 "앞으로 4년 동안 종단 행정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는 데 만감이 교차한다. 벅찬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 "태고종이 대중포교 종단으로서 거듭나고 좋은 종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만 잘한다고 종단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종도들 스스로도 태고종도임을 자각하고 발전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은 지난 4월 18일 열렸던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상진 스님은 62.1%라는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스님은 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청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한편, 태고종 제27 · 28대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는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양주 청련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태고종 · 천태종은 일불제자, 전법 앞장"

6월 26일, 관문사서 환담 나눠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6월 26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만나 함께 불교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상진 스님은 서울 관문사에서 덕수 스님을 방문해 "태고종이 과거 내홍으로 시끄러워 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폐를 끼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덕수 스님은 "종단 살림이 클수록 소리도 큰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태고종과 천태종 모두 부처님 제자인 만큼 함께 포교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에 상진 스님은 "앞으로 태고종도 열심히 노력해 종단협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서울 관문사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사진 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

韓 불교계 "조선인 희생자 유골 봉환 노력"

한국불교종단協 6월 25일 日일승사서 위령재 봉행
유골 발굴 앞장서온 일승사
한국불교계 위령재 78년 만
진우 스님 "늦은 추모, 죄송"
'강제동원전시관' 재건립 지원



일본 홋카이도 일승사에서 조선인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진=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일승사를 찾아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영가를 천도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 국내 각 종단이 힘을 모아 일본에 안치된 선조들을 늦게나마 추모한 것.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한국불교지도자 일본 북해도 불교문화교류' 일환으로 6월 25일 홋카이도 후카가와시 일승사에서 '북해도 조선인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일승사는 1976년부터 일본의 강제동원이 인권범죄임을 알리며, 유해발굴과 봉환에 앞장선 일본사찰이다. 2008년과 2015년 100명이 넘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불교지도자들이 일승사를 찾아 위령재를 봉행한 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처음이다. 위령재에서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후손들의 뒤늦은 추모에 죄송한 마음을 표했다. "너무나도 늦게 고인들을 추모하는 것이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일본 사찰에 봉안된 조선인 희생자 유골을 고국으로 봉환하는 데 한국불교가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승사 주지 토노히라 요시히코 스님은 한국불교 스님들이 최초로 위령재를 봉행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일승사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 봉안함 3위를 불단으로 이운했다.

한국 전통식으로 삼귀의례를 올리고 반야심경을 독송한 사부대중은 묵념으로 희생자에 대한 예를 표했다.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협 회장단은 헌향을 하며 영가를 위로했고, 부회장 호명 스님이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렸다.

토노히라 요시히코 스님은 홋카이도 강제동원전시관이 폭설로 붕괴되면서 일승사에 조선인 희생자 유골과 위패를 봉안했다. 이에 전시관 재건립에 나서 일본 전역과 한국에서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노히라 스님의 얘기를 전해들은 종단협 대표단은 강제동원전시관 건립기금을 전달하고,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개인적으로도 건립기금을 기탁했다. 윤호섭 기자

청소년용 '하이, 화쟁_라이트' 발간

화쟁위, 전국교법사단 함께 제작
"청소년 일상 갈등 해결에 도움"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문, 이하 화쟁위)가 전국교법사단(단장 김덕진 교법사, 이하 교법사단)과 공동으로 청소년용 화쟁안내서 〈하이, 화쟁_라이트〉를 발간했다.〈사진〉

〈하이, 화쟁_라이트〉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화쟁위와 교법사단은 2020년 〈하이, 화쟁〉을 첫 발간하고 3년간 종립학교 시범수업을 진행한 후 교법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개정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갈등 대처 유형 찾기 △감정 찾기 △속마음 찾기 △화쟁으로 대화하기 △화쟁 대화 실습하기 △화쟁이야기_원효스님 깨닫다 등이다.

이 책은 '아빠와 아들 간의 진로 갈등', '엄마와 사춘기 아들 간의 갈등', '이성 친구와의 갈등' 등 일상의 갈등 사례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끈다. 특히, 갈등 사례 영상에는 종립학교 학생 다수와 교법사들이 직접 출연해 학생들의 관심을 자아낸다.

각 장이 활동지 중심으로 제작됐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갈등 대처 유형을 알고 갈등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살펴보며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했다.

김가연 화쟁위원(광동고 교법사)은 "〈하이, 화쟁_라이트〉가 청소년들이 일상의 갈등을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임은호 기자



근대불교 이끈 만암·용성 대종사 조명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양사, 만암 대종사 조명 세미나

만암 대종사 생애·사상 짚어
"〈만암문집〉 재발간" 제언도
"대종사 위상 재평가 기대"

근대 한국불교를 이끈 선지식 만암 대종사와 백용성 대종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개최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는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만암 종헌대종사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만암 대종사의 수행, 교육사업 등 업적과 수행·사상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만암 대종사의 수증과 불교사상'을 통해 대종사의 불교·수행관과 사상적 면모를 살폈다. 금강 스님은 만암 대종사의 활동과 업적을 중생심에 기초한 자비행의 관점에서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만암 대종사의 자비행을 △정화에서의 자비행 △선농일치에서의 자비행 △민족의식에서의 자비행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스님은 "정화에서의 자비행은 대처승과 그 가족들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며, 선농일치의 자비행은 기근에 허덕이는 마을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구제하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과 고불총림 등에서의 자비행은 새로운 나라를 온전히 일구는 행복을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강 스님은 만암 대종사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만암문집〉 재발간 △만암 대종사 시(詩)세계 연구 △만암 대종사 사상 현대적 의미 발굴 등을 제언했다.

학술세미나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도 만암 대종사의 위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20세기 한국불교사에서 만암 대종사의 역할과 위상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 대종사께서 남기신 화합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노력으로 만암 대종사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선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암 대종사

이와 함께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만암 종헌의 생애와 활동-1928년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김상영 前 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불교정화의 재인식(김광식 前 동국대 특임교수) △만암의 교육활동과 의의(황인규 동국대 교수) △만암대종사의 행장과 관계된 몇 가지 검토(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가 발표됐다.


백용성 선사

조계종 대각회 법안정사(주지 법수)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6월 25일 목동 법안정사 2층 관음전에서 백용성 선사 탄신 1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용성 대종사 대각선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백용성 선사의 대각사상과 대각운동을 합한 조어(造語)인 '대각선'을 처음으로 조명하고, 이를 학계에 연구적 화두로 던지는 자리여서 눈길을 끌었다.

대각사상硏 '대각선' 고찰 세미나

선사 탄신 160주년 맞아 개최
보광 스님 '대각선' 화두 던져
"민중대각화사업, 대각선 화두"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대각선 연구'를 통해 '대각'의 사상적 연원과 대각선 정립 및 전개, 실천을 백용성 선사의 생애·저술을 근간해 조명했다. 보광 스님에 따르면 백용성 선사가 '대각'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16년 종로 대각사를 창건하면서부터다. 〈백용성 총서〉에만 654회가 등장하는 '대각'은 경론 상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고 부처님 자체를 뜻한다.

백용성 선사가 보여준 '대각관(大覺觀)'에 대해 보광 스님은 "자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자각각타(自覺覺他)'"임을 밝히며 "이를 위한 공동체가 대각교이고, 근본적인 사상이 대각사상이며, 이를 사회화한 것이 대각운동이다. 이러한 수행이 바로 대각선"이라고 규정했다.

'자각각타'를 요체로 한 대각선의 실천을 백용성 조사는 민족독립운동과 참선포교, 대각교 운동으로 보았다. 보광 스님은 "대각교 운동은 '대각'을 사회화한 '대각선'이다. 결국 '대각선'의 궁극적 화두는 '민중대각화사업'에 있다"며 "백용성 선사는 자각(自覺)과 각타(覺他)를 아우르는 대각선을 실천한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백용성 선사의 선사상 전반을 되짚는 학술논문들이 발표됐다. 허정선 동국대 철학박사는 '백용성의 참선포교'를,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용성선사의 법거량'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용성진종 선교관의 특징'을 발표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는 '대각회 자료DB구축의 성격과 전망'을,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은 '만일참선결사와 봉암사 결사의 비교'를 선보였다.

'직지' 연구 야닉 교수, 한불문화상 수상

주 프랑스 韓대사관 수여
진우 스님, 서신으로 축하



야닉 브뤼느통 교수〈사진〉가 '직지'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프랑스에 알려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6월 13일 야닉 브뤼느통 교수에게 '제21차 한불문화상'을 수여했다. 야닉 교수는 프랑스 파리 7대학 동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21~2년 조계종 사회부가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국고지원으로 진행한 '직지' 불어 번역에 매진한 바 있다.

프랑스 소재 한국학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야닉 교수는 고려역사(10~14세기), 중세한국 국가와 불교의 관계, 한국 풍수역사, 한국 중세 금석학(비문) 등을 연구해왔다. '고려의 풍수지리학승려'를 주제로 200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향적 스님의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2014)'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2020)', 한국불교(2016) 등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하서신을 통해 야닉 교수의 수상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교수님의 수년에 걸친 연구와 번역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인 쇄본으로만 알려져 있던 '직지'의 불교적 가치가 프랑스어권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면서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문화와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불문화상(Prix Culturel France-Coree)은 1999년 권인혁 전 주불한국 대사에 의해 창설됐다. 프랑스 내 한국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킨 개인이나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정명훈 지휘자, 백건우 피아니스트, 나윤선 재즈 가수, 안은미 안무가, 낭트 '한국의 봄' 축제 협회, 파리한국영화제 등이 있다.

임은호 기자

기록만 있던 '미탄사지' 사역 확인

문화재청·경주시, 6월 30일 발굴현장서 설명회

경주 미탄사 사역·배치 확인
왕경 사찰과 다른 가람 배치


경주 미탄사지와 삼층석탑 전경.

기록으로만 전승된 사찰인 경주 미탄사의 사역과 배치가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6월 30일 경주시 구황동 소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경주 황룡사지 남쪽에 위치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탄사는 그간 역사 기록에는 남아 있지만 실존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 2014년 문화재청 중요 폐사지 시·발굴조사 사업에서 '미탄(味呑)'명 기와가 출토되면서 삼층석탑과 함께 사찰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하나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미탄사의 사역(사찰이 차지하는 구역)과 배치가 확인됐다.

발굴조사 결과 '미탄사'는 8세기 후반 기존 황룡사지 남쪽 신라방 내 가옥에서 사찰로 전환돼 13세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역은 신라왕경 방리제 안에서 방내도로로 구획된 곳에 세로 약 160m, 가로 약 75m, 면적 1만2000㎡로, 삼층석탑과 금당지를 비롯한 여러 동의 부속 건물과 원지(園池, 정원 안에 있는 연못), 담장, 우물, 배수로 등이 갖춰져 있었다.

사찰 영역은 삼층석탑과 금당으로 구성된 예불 공간, 승려들이 거주하는 승방과 부속 건물 등으로 구성된 생활공간, 그리고 원지 일원의 후원공간으로 나눠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탄사는 추정 문지-탑-금당이 남북으로 배치되었는데 금당이 탑의 중심축선상에 벗어나 있어 전형적인 신라왕경 내 사찰과는 다른 형태의 가람배치를 보인다. 이는 8세기 이후 신라왕경의 도시가람으로 지어진 귀족층의 원찰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왕경 사찰 연구에 있어 학술적 의미가 크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원지(약 33×28m, 약 900㎡)는 금당지 북서쪽에 위치하며, 동쪽 남북대로(大路)의 배수로에서 원지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입수구를 갖추었다. 원지는 직선과 곡선호안으로 이뤄져 있는데, 호안의 동벽과 북벽은 강돌을 여러 단 쌓아 직선호안으로 만들었고 서벽과 남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곡선호안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형태의 미탄사 원지는 동궁과 월지, 구황동 원지, 용강동 원지와 함께 신라왕경 내 원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면서 "기존 나말여초(신라 말기~고려 초기) 석탑으로 여겨지던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의 하부 지정층을 조사한 결과 석탑이 8세기 후반에 건립되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前 범어사 강주 지오 스님 원적

법납 54년 세수 77세로



前 범어사 강주 정혜당(定慧堂) 지오(至晤) 스님〈사진〉이 6월 27일 오후 1시 32분 범어사 서지전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납54년, 세수77세. 영결식은 7월 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다비식은 범어사에서 엄수됐다.

지오 스님은 1970년 광덕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1973년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종 중앙교육원 교육수료를 했다. 동국대 동국역경원에서 수학하여 역경사과정을 수료, 1979년 동화사에서 유식학을 공부했다. 스님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 해인사 및 범어사 선원에서 17안거를 성만했다. 1996년 중국 구화산, 그 이듬해 1997년에는 중국 오대산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2004부터 2008년까지 범어사 율원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2012년부터 범어사 교수사 소임을 맡아 후학들을 가르쳤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등록민간자격(제2018-00234호) 과정

2023 불교명상지도사 과정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1급	2급
강의기간	-교육 8월 26일~12월 16일(16회)	-교육 9월 7일~12월 14일(총 15회) -워크숍 12월 21일 (1회)
강의시간	-매주 토요일 9:30~16:3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교육 매주 목요일 10:00~17: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워크숍 목요일 9:00~21:00
대상	-불교명상지도사 2급 수료자	-명상수행 또는 명상지도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
비고	-교육 6회 대면 필참	-교육 5회+워크숍 대면 필참 -수강료에 워크숍 비용 포함

수강방법 : 대면 및 비대면(zoom) 강의
불교상담개발원 대강의실(성북구 개운사 內,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모집마감 : 2023년 8월 22일(화) 17시

수 강 비 : 108만원(카드 3회 분납 가능)

입 금 처 : 국민은행, 023501-04-181820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팩스 접수
*E-mail : jabi3719@daum.net / fax : 02-737-8802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특 전
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 응시자격 부여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인증과정
3. 교육비 할인 (스님 40%, 종무원 및 포교사 30%, 본원회원 20%)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문의 T. 02)737-7378 홈페이지 www.kbcd.org 주소 (02842)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전등사·온수리 성당, 족구로 '종교화합'

강화 전등사 · 성공회, 6월 25일 제7회 족구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
장년 신도층 족구대회 정례화
종교 간 화합, 지역발전 일익
여암스님 "지역 종교화합 귀감"


전등사 스님들과 대한성공회 강화군 신부들이 6월 25일 족구경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화 지역 불교, 성공회 소속 종교인과 신도들이 족구로 종교화합의 물꼬를 텄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와 대한성공회 온수리 성당(신부 주성식)은 6월 25일 전등사 남문 주차장에서 '종교화합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전등사와 대한성공회 온수리 성당의 족구대회는 다종교 사회인 한국사회의 종교화합에 일조함과 동시에 두 종교시설이 소재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개최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사회적 거리 실천 방침에 따라 3년 동안은 족구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족구대회가 재개됐다. 전등사와 온수리 성당의 족구대회는 한 해는 전등사에서, 그 이듬해에는 온수리 성당에서 개최되고 있어 주최 측이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족구대회에서는 전등사 스님 대성공회 신부, 전등사 거사림회(중장년층 남성신도회) 대 온수리 성당 장년회, 전등사 여성신도회 대 온수리 성당 여성신도회가 경기를 벌였다. 승패를 떠나 선의의 경쟁을 벌인 전등사와 온수리 성당은 앞으로도 종교화합과 온수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날 족구대회에서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교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암 스님은 "불교의 자비와 성공회의 사랑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을 것"라며 "성당과 교회가 많은 강화도에서 별다른 종교간 다툼이 없는 것은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전등사 거사림회와 온수리 성당 장년회의 족구대회는 강화도의 종교화합에 귀감이 될 만한 본보기"라며 "전등사는 앞으로도 종교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이웃종교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수리 성당 주성식 신부는 축사를 통해 "족구대회를 준비하신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을 비롯한 전등사 스님과 신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웃종교 간 화합과 친선을 위해 온수리 성당과 전등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공회 온수리 성당은 콩나물을 키워서 판매한 금액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우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마을'에는 100여 명의 지적 장애인이 직업 재활을 받고 있다. 전등사 회주 학룡 장윤 스님과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는 오래 전부터 강화도의 종교화합과 지역발전에 뜻을 같이해오고 있다.

'不二禪' 선취 담긴 추사 난초화 보물된다

문화재청 6월 27일 지정 예고
추사 김정희作 '불이선란도'와
조선 불화 · 동종 · 경전도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김정희의 '불이선란도'

"난(蘭)을 그리지 않은지 20년, 우연히 그렸는데 하늘의 이치(性中天)가 담겼네. 문을 닫아걸고 앉아 찾아 헤매던 것, 이것이 바로 유마 거사의 불이선(不二禪)이더라. 누군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비야리성(바이샬리) 살던 유마가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절하겠네."

이는 조선 후기 서화가이자 금석학자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작품인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의 제발(題跋)다. 유마의 불이선이 투영된 추사의 난초화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난초 그림인 '불이선란도'를 비롯해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파주 보광사 동종', '불조삼경' 등 조선시대 불화 · 동종 · 전적 4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불이선란도'는 10대 때부터 묵란(墨蘭)을 즐겨 그렸던 추사가 난초를 서예의 필법으로 그려야 한다는 자신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달준이라는 인물에게 그려준 이 작품은 화면 가운데 난초를 옅은 담묵으로 그리고, 주변에 회화사상 보기 드문 수준의 높은 격조(格調)를 담은 제발(題跋)을 4군데에 썼다. 글씨는 여러 서체를 섞어 썼으며, 글자 모양과 크기에 차이가 있다.

문화재청은 "19세기 문화사를 상징하는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작품으로 높은 예술적 ·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36년(영조 12)에 제작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제작한 화승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특색 있는 머리 모양, 여래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고 안정적으로 구성된 구도와 배치 등을 볼 때 팔공산 일원에서 활약한 의균(義均) 등의 화승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한 영산회상도이면서 권속으로 아미타팔대보살에 속하는 지장보살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형식은 19세기 경상도 일대와 서울, 경기도에서 제작되는 후불도의 한 유형이다.

문화재청은 "석가 신앙과 아미타 신앙의 융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 후기 불화의 형식과 신앙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라며 "더불어 도설된 내용과 화기에 기록된 화제가 일치하여 18세기 전반 영산회상도 도상 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파주 보광사 동종'은 주성기(鑄成記)를 통해 천보(天寶)가 청동 300근을 들여 1634년(인조 12) 제작했음을 알 수 있는 동종이다. 중국종의 형식에 우리 고유의 미감을 반영하는 조선 전기(15~16세기) 동종의 새로운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특히 천보(天寶)의 마지막 작품으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예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부천 석왕사 소장 〈불조삼경〉은 원나라 판본을 바탕으로 1361년(공민왕 10) 전주의 원암사에서 번각한 목판본이다. 중국 원나라 고승인 몽산 덕이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사(祖師)가 설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불서(佛書)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익명 스님, 동국대 WISE캠에 3억원 '쾌척'

6월 19일 장학기금 전달

동국대 WISE캠퍼스 학생들의 장학금에 써 달라며 익명의 스님이 3억 원을 쾌척해 귀감이 되고 있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익명의 스님이 지난 6월 19일 동국대 WISE캠퍼스 인재양성 장학기금으로 3억 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스님이 마지막 회향을 앞두고 평소 근검절약해 모은 소중한 정재인 것이 알려져 그 의미가 크다. 스님은 "불교인재 양성과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 WISE캠퍼스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는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및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교인재 양성과 불교종립대학 동국대 WISE캠퍼스 발전을 바라는 스님과 불자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익명의 노스님이 동국대 WISE캠퍼스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한편, 동국대 WISE캠퍼스는 기부금을 인재육성 장학금과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1인 미디어 시대, 포교동력 기대"

조계종 포교원, 제4기 불교 크리에이터 위촉



포교원(원장 범해)은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4기 불교 크리에이터 위촉식'을 열고, 현밀 스님을 비롯한 크리에이터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사진〉

제4기 크리에이터는 △'뭉밀이' 캐릭터로 기초교리를 담은 일러스트를 선보이는 현밀 스님(부따밀밀) △불화에 현대적 요소를 더해 디지털아트로 표현하는 김동현(태산) △디지털아트를 활용해 불교명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김상규(스튜디오무상) △템플스테이 웹드라마를 스케치코미디와 결합해 선보이는 차준호(차씨네) △유튜브에 사찰탐방 콘텐츠를 담을 심효빈(추추비니) △중학생 대상 불교콘텐츠를 제작하는 김권태(요즘학교) △한복을 입고 사찰 여행을 떠나는 이서윤(절데렐라) 등 7명이다.

이 자리에서 범해 스님은 "요즘은 사람과 대화하기보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만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시대"라며 "세상 변화에 따라 포교 방편도 변해야 한다. 불교가 사회 속에 스며들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7대 종단 신도들, '탄소중립' 실천 다짐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세미나 · 캠페인 펼쳐


흑석역 1번 출구 앞에서 탄소중립 캠페인에 나선 7대 종단 신도 대표들.

7대 종단 신도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대표회장 주윤식, 이하 한사평)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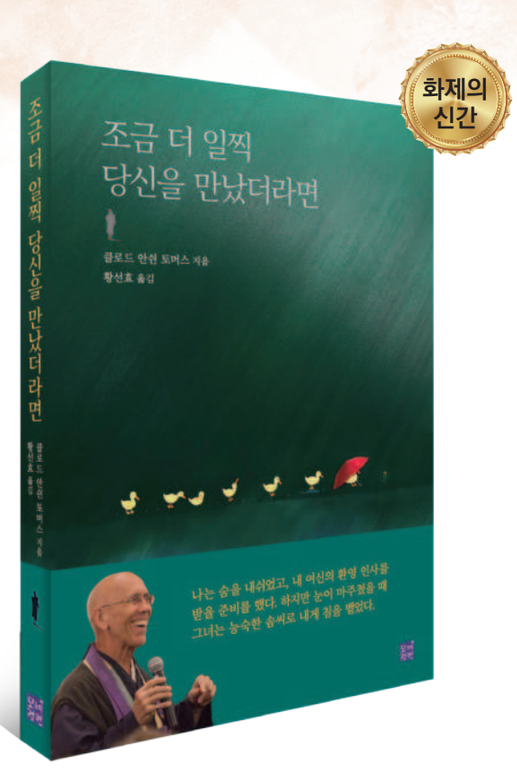
한사평은 6월 24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일원에서 올해 첫 공식활동인 '2023년 답게살겠습니다 세미나'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주윤식 대표회장은 "함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2023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의 범국민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흑석역 1번 출구 앞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 펼쳐졌다. 한사평은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고, 7대 종단 신도 대표들이 탄소중립 피켓 퍼포먼스를 펼쳐 개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생활 속 佛法 실천…'붓다의 딸들' 머리 맞대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서 발표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은 대회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불교 속 젠더에 대한 관념과 비구니 수계 현황, 생활 속 부처님 가르침 등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 중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논문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서 발표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은 대회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사진은 황수경 교수의 '현대사회에서 생활 속 수행의 필요성: 대행 선사의 생활선을 중심으로' 발제 모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논문발표 세션 1 '한국의 불교여성'에서는 한국비구니 역사에서부터 조계종단 내에서 비구니의 위상, 여성재가불자의 사회적 영향력과 도전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발표가 이어졌다.

황수경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생활 속 수행의 필요성: 대행 선사의 생활선을 중심으로'에서 한국의 비구니 선사로서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에 노력해 온 대행선사(1927~2012)의 생활선에 대한 특성을 살펴봤다.

수행 원리의 중심인 '한마음 주인공'에 대해 설명한 황수경 교수는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자신과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근본인 한마음에 믿고 맡김으로써 내면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며 "본래 누구나 갖추고 있는 근본의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생활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일체를 주인공인 한마음에 맡기면서 생활하면 곧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사는 모든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내면의 마음 에너지를 활용해 자유롭게 진화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면서 "선사의 가르침대로 모든 존재는 자신의 또다른 모습임을 알고 남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세션 3 '깨달음의 추구: 비구니 수계의 현황'에서는 부탄과 캄보디아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구니계 부활을 위한 노력이 상세히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뻬마데끼 스님은 '비구니계 부활을 위한 부탄의 노력'에서 "2014년 부탄에서 열린 국제불교여성대회에서 처음으로 불교 여성 출가자를 위한 사미니 수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여성 출가자들의 구족계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면서 "이후 2022년 열린 최초의 현대 비구니계 수계식은 역사적인 날이자 부탄과 부탄의 여성 출가자, 부탄 비구니 재단뿐만 아니라 불교 역사 전체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구족계를 받은 여성 출가자 중에는 이미 대학원 과정을 마친 저명한 종교학자도 있다. 뻬마데끼 스님은 "이제 비구니로서 인정받은 이들은 교육자로서 의미 있는 인정과 큰 공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승가 규율을 공부하고 계율을 준수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다보면 수행은 성숙한다는 점에서 여성출가자들이 이제 비구들만 배울 수 있었던 전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5개 세션에서 2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6월 24~27일 샤카디타 세계대회 현장
5개 세션, 전문 학자들 27편 논문 발표
황수경 교수 "마음 에너지 활용" 강조
캄보디아 등 비구니계 부활 노력 눈길

말라이 오츠는 '캄보디아 불교사부대중을 완성할 비구니 교단회복을 위한 도전'에서 교육 리더십 박사학위를 받고 캄보디아 비구니승가 추진위원회를 공동 설립하기까지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설명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들의 노력으로 2022년 말레이시아에서 세 명의 캄보디아 여성들이 테라바다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었다. 말라이 오츠는 "비구와 마찬가지로 비구니 사찰과 소녀들을 위한 불교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번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서는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상성' '순례, 수행,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속에 적용하기' 등을 주제로 총 2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대회에서 진행된 50여 개의 다양한 워크숍도 불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롭게 참석하며 한국불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배우고 체험했다.

혜모 스님과 한마음선원 청년회가 준비한 '연등제작과 행사를 통한 마음공부' 워크숍에 참여한 후앙 판 대만 불광산사 신도는 연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6월 24일 오후 진행된 워크숍에서 연등제작과 연등행사에 참석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마음공부 재료로 삼으라는 대행 선사의 뜻을 알리고 연등회가 불자들의 종교행사일 뿐 아니라 종교,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돼 즐기는 축제임을 참가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것. 혜모 스님은 이날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등을 만들고 연등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한마음선원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베트남에서 온 아옹 스님은 "연등을 제작하는 워크숍 과정을 통해 탐, 진, 치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모두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혜의 등불을 만들어 낸 것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서 "특히 불자들이 손을 모아 하나의 연등을 만들어 내는 활동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탁본의 가치를 체험하면서 불교문화를 알아가는 탁본 워크숍에도 많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송정사 주지 중원 스님은 탁본의 가치를 체험하면서 불교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워크숍을 구성했다. 돌과 금속에 새겨진 글자와 문양을 먹을 이용해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진정 스님이 진행한 '찰나의 명상으로 만든 찰나의 Short' 워크숍은 명상과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신박한' 아이디어로 즐거움을 줬다. 참가자들은 함께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출된 몇가지 제시어를 가지고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명상 도중 떠올랐던 단어나 이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이들은 아이디어로 영상을 찍거나 가사를 만들고, 자유롭게 멜로디를 넣으면서 이를 모아 간단한 영상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한복 미니어쳐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자비명상, 마음챙김 글쓰기, 환경을 생각하며 팻말 만들어 거리 운동, 정념명상과 다도, 단청그리기, 웃음요가 등 사흘간 이어진 다양한 워크숍은 한국불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불교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샤카디타 이모저모

진관사 사찰음식에 "원더풀"

천년고찰 진관사(주지 법해)에서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진관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사찰음식을 맛보고 입을 모아 "원더풀"을 외쳤다.

진관사가 마련한 사찰음식은 표고버섯조림, 메밀전, 곤드레나물, 노각무침, 근대된장국 등 10여 개로 구성됐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담긴 것,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사찰음식"이라며 이날 선보인 메뉴를 소개하자 천천히 사찰음식을 음미한 참가자들은 "맛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철학과 문화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죽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전 회장 텐진 빠모 스님은 "아름답고 청정한 도량에서 믿을 수 없는 맛의 음식을 대접받아 기쁘다"면서 "샤카디타 참가자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 맛있게 사찰음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준비해준 진관사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을 공양한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원더풀"을 외쳤다.

태국에서 온 나로우 씨는 "야채에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면서 "양념이 적으면 맛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요즘 트렌드와도 잘 어울리는 맛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 숨은 조력자 '자원봉사자들'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불심도 한몫했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묵묵히 일손을 돕는 봉사자들의 활약은 불교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매끼 3000인분, 주말에는 5000인분의 공양이 준비됐던 봉은사 만발공양간은 덕환 스님과 선재 스님을 비롯한 수백 명의 전국비구니회 스님, 셰프 12명, 그리고 봉사에 나선 불자들 덕분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다. 봉사자들은 매 끼니를 위한 재료구매 과정부터 손질, 조리, 배식,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에 힘을 보태며 배식에 만전을 기했다.

메인 셰프 정권식 한국중식요리협회 중앙회장은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편안한 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음식 제공에 신경 썼다"면서 "손이 많이 가는 메뉴들이었음에도 자원봉사들 덕분에 무리 없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사 기간동안 코엑스 내 차려진 찻자리는 전국비구니회 차문화연구소와 한국명선차인회에서 준비했다.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5일간 끊임없이 녹차와 연차, 오미자냉차 등 한국 전통차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디저트를 맛보게 하고 싶은 마음에 꽃 송편과 한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인기를 끌었다.


매끼 3000명이 넘는 참가자의 공양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활약도 빛을 발했다.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행정 담당까지 약 20여 명의 의료진들은 대회 기간 동안 코엑스에 부스를 마련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앰뷸런스 1대도 코엑스 앞에 대기 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의료지원은 타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소화불량과 감기, 두통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고령 참가자가 많은 행사 특성을 고려, 관절과 혈압 등에도 대비했다. 다행히도 대회기간 동안 대형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숙 대외협력홍보팀장은 "개막부터 순례까지 모든 행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썼다"면서 "동대병원 의료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불교행사에서 봉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성파시조문학상 40돌…“문학 발전 밑거름”

〈등으로는 안을 수 없다〉 김수엽 시조시인 대상

통도사 서운암서 시상식 개최
전국 단위 공모로 저변 확대
1984년 첫 시상식 이후 40년
성파 대종사 “전통 이어가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난달 24일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열린 ‘제40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에서 성파 대종사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조문학의 가치를 알리고 민족시의 전통을 계승해온 ‘성파시조문학상’이 제정 40년을 맞았다. 통도사 서운암(감원 서송)은 6월 24일 경내 장경각에서 ‘제40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40회를 맞은 성파시조문학상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공모 범위를 확대했으며, 우리나라 전통문학의 시작인 시조의 부흥과 현대적 구현을 강조해 의미를 더했다.

제40회 성파시조문학상 대상은 시조집 〈등으로는 안을 수 없다〉를 펴낸 김수엽 시조시인이 선정됐다. 김수엽 시조시인은 1992년 중앙일보 연말 장원, 199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됐으며, 시조집 〈우리 시대 현대시조 100인〉에 선정됐다. 시조시학 젊은시인상을 수상하고 한국시조시인협회 · 오늘의시조시인회의 회원, 전북시조시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문학상은 ‘하루의 그늘’을 쓴 서성자 시인과 ‘뜸부기’ 저자 박미자 시인이 각각 선정됐다. 새롭게 제정된 평론상은 유종인 평론가가 ‘현대시조의 식물적 상상력과 다의성의 미학’으로 수상했다. 또 홍외숙 시인이 ‘숨은 마음 찾기’, 전승탁 시인이 ‘뚜엔의 눈물’로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이 전달됐다. 상금은 대상 1000만 원, 문학상과 평론상은 각 500만 원, 작가상은 각 200만 원이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통도사 한주 성림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해 이정환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김민정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김병환 울산시조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시조문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문학상이 40년을 맞았다. 전국 문학인들이 동참하는 시조문학상으로 성장한 것은 시조문학인들의 끝없는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시로써 오랜 전통을 이어온 문학이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은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님의 후원으로 시조문학은 명맥을 잇고 수많은 시조문학인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해줄 수 있었다”며 “문학상 제정 40년은 전국으로 문학상 대상자를 확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게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발전과 시조 부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파시조문학상은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1984년 10월 26일 첫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2015년 32회까지 부산과 경남 시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2016년 33회부터 부산, 경남, 울산, 해외로 공모 지역이 확대됐다. 올해는 전국으로 공모 범위를 넓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미를 더했으며, 이번 40회 시상식을 기념해 〈성파시조문학〉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21세기 고타마 정신 되새겨야”

황경환 박사, 〈산스크리트 원문~〉 출판 기념법회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환 박사〈사진〉가 6월 24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이영경 WISE캠퍼스 총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에서는 축하무대와 우리말과 팔리어 삼귀의례, 저자 인사말 및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황경환 박사가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을 주제로 강의한 동영상이 상영됐다. 특히 이날 황경환 박사는 초기불전연구원(보리원) 신축불사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황 박사는 “생사의 문제가 반야심경 안에 있으며 생명과도 같은 화두를 깨우치며 얻은 결론을 책에 담았다”며 “한국불교 1600년 동안 중국불교를 답습하고 그로 인해 고타마 붓다의 정신과 가르침에서 어긋남을 이해했다. 21세기 고타마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서기 649년 현장 스님이 번역한 한문본을 대조하며 현장 스님이 담지 못한 것을 찾아 구석구석 대조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 책은 반야심경 260자 속에 담긴 생사 문제와 삶의 방향을 풀이하고 있다. 책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반환점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책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는 김사철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와 불자 사업가인 황경환 박사가 초기불전을 근거로 반야심경을 풀이한 해설서다. 경주=하성미 기자

마음등불 밝히니 마음이 ‘맑음’

군포 정각사,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개최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는 ‘2023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비 온 뒤 맑음’을 군포 정각사 포교당 광명사 내 광명도량 강당에서 개최했다. 정각사 내 사찰 홍보 및 각 신행단체, 군포시 산본역 거리홍보 등을 통해 사전접수를 받았으며, 6월 4일 진행돼 군포시 청소년 16명이 참가했다.〈사진〉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이번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비 온 뒤 맑음’이란 주제로, 마음챙김 기반 명상과 미술치료의 측면을 통합해 청소년의 자기 자비, 심리적 안녕감 및 학업 스트레스 감소를 느껴보도록 구성됐다. 특히 ‘비’라는 주제에 따라 연관된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미술매체를 통해 마음껏 표현하게 함으로써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줬다.

여옥 스님(청소년 지도법사)은 “대학원(동국대 상담코칭학과 상담심리전공)에서 미술심리치료를 공부하면서 김서현 교수와 함께 도반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상과 미술매체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 · 외적 갈등을 탐색하고 미술매체를 사용해 작품을 만든 후 소감을 나누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각사는 인재양성을 위해 매주 어린이 · 청소년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광명도량 강당을 새롭게 꾸며 법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정각사 어린이 · 청소년 법회는 매주 일요일 10시 군포시 대야미동 광명사 내 광명도량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음성공양으로 전한 자비 나눔

부산 자비암문화예술단 창립 8주년 기념콘서트


‘자비암문화예술단 8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가수 엄재원(드림)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

전문 가수들의 음성포교를 위해 구성된 자비암문화예술단(명예회장 자관)이 창립 8주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6월 25일 부산 동래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자비암문화예술단 8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태고종 자비암이 창립한 문화 예술인의 모임으로 가수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술단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지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경품 추첨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예술단 소속 가수들의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후문이다.

행사에는 자비암문화예술단 명예회장 자관 스님,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8주년 기념 콘서트를 위해 예술단은 제습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복부마사지기 등 선물을 준비해 지역민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어린이 치어리딩 슈팅스타와 김영부, 윤애경, 금가인, 엄재원 등 여러 가수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다.

명예회장 자관 스님은 “〈화엄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땅에서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다. 실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귀에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는 뜻”이라며 “자비암문화예술단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만나는 음악은 더 할 나위 없이 큰 감동이 된다. 앞으로도 신심을 놓지 말고 고운 음성으로 청중의 마음을 맑혀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미 예술단 회장은 “8주년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관 스님을 비롯해 단원들의 마음과 뜻이 함께 어우러져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함께 즐겨주시고 소중한 추억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이 음성포교와 불교발전을 위해 예술단 창단을 최초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3개월의 준비과정을 마친 뒤 2015년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식 창단했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문화예술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난 8년간 불교를 주제로 음성포교를 이어왔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매월 정기공연을 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매년 6회 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음성포교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매년 4회 부산 연제구와 사상구, 장애인협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음성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예술단은 동래구, 사상구, 북구, 중구 등 지역에서 수여하는 공로상과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붕 스님 사상 후대에 이어지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일붕존자 탄신 · 원적 추모



일붕 스님의 탄신 109주년을 기념하고 원적 27주기를 추모하는 대법회가 열렸다.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문장 혜운)는 6월 26일 의령 일붕사에서 ‘세계법왕 일붕존자님 탄신 109주년 기념 및 원적 27주기 추모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문도중앙회 문장 혜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붕존자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27주기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만 같다”며 “존자님의 흔적과 사상을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자의 한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도중앙회장 정림 스님은 봉행사에서 “일붕사는 일붕존자님의 성지로 존자님의 진신사리와 부도탑, 법보전이 있는 일붕성지”라며 “먼 훗날까지 존자님의 사상이 유지되도록 모든 불자들이 함께 동참해 세계적인 성지를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장 월인 스님은 “생전에 불교 발전을 위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면서 포교 하셨기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불교가 전해졌다. 존자님은 세계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대성인”이라고 추모했다.

문도중앙회 총재 동봉 스님도 “우리는 존자님의 제자로서 존자님의 사상을 이어 받아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문도중앙회 명예회장 천강 스님은 “큰스님께서 가장 애착을 가진 세계불교법왕청을 이어 받아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 제고에 동참하는데 견인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 내장사 회주 대우 스님의 추모시 ‘하늘 눈 해와 달이 되어’ 낭독, 추모사와 일붕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낭독됐다. 또 문도중앙회 총재 동봉 스님에게 일불평화대상이 수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시로 회향한 무료급식 20년

우신 스님 전시 ‘회향’ 개최 그림 80여점… 수익금 기부


부산 혜일암 주지 우신 스님이 ‘회향’ 전시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우신 스님(부산 혜일암 주지)이 20여 년 동안 이어온 무료급식을 회향을 알리는 그림 전시회 ‘회향(廻向)’을 개최했다.

6월 27일 부산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우신 스님을 비롯해 성공 스님(범어사 대성암 감원), 정찬 스님(도림사 주지)과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강창일 금정문화회관관장, 고명욱 명갤러리대표, 유창오 백송 천연염색연구원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신 스님은 “어머니에게 못다 한 효도를 지역 어르신에게 대신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무료급식이었다.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급식을 멈추게 돼 회향 아닌 회향을 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미처 하지 못하고 떠나온 어르신들과의 공식적인 작별인사를 전하기 위해 전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의 인사에 이어 백종헌 국회의원과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신 스님이 펼쳐온 봉사정신과 자비행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시에는 우신 스님이 5년 전부터 틈틈이 배우고 익혀온 그림 80여점을 선보였다. 그림은 스님이 직접 천연 염색한 천에 그린 것으로 꽃, 과일, 자연풍경, 사찰 탑 등 스님이 보고 사진으로 찍어둔 순간을 표현했다.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우신 스님은 1975년 출가해 운문사 승가대학을 수료한 뒤 선방에서 안거했다. 인도 무문관 수행을 했으며 소록도 재소자 교화 2년, 어르신 무료급식 18년, 독거어르신 반찬 서비스 봉사도 7년 동안 진행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티베트 게쉬 체링 노루부 초청법회

울산 서장사 주최…연기법 주제로 대중법문

울산 천마산 서장사(주지 불성)가 6월 25일 대웅전에서 티베트 게쉬 체링 노루부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노루부 스님은 티베트 3대 사찰 중 하나로 알려진 대풍사원에서 불교 교육부 주요책임자로서 불교철학을 교육하고 있다.

이날 게쉬 체링 노루부 스님은 연기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롭게 하고자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의 경지를 이룬다면 모든 고통과 아픔은 그 뿌리까지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다”며 “매시간 삼귀의를 하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생명들을 위해 무량한 마음으로 선을 쌓는 보시행을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에는 주지 불성 스님, 노루부 스님, 인강 스님을 비롯해 양승규 동국대 교수 및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법문, 기념촬영, 사홍서원, 산회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통역은 인강 스님이 맡았다.

주지 불성 스님은 “법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들은 법문을 실천 수행해 자신의 것으로 이루는 것이 최고의 복덕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장사가 6월 25일 대웅전에서 티베트 게쉬 체링 노루부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창종 77주년 법화종, 전법포교 매진한다

6월 27일 영월문화회관서 창종기념법회

영월=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창종 제77주년을 맞은 대한불교법화종이 전법 포교를 비롯한 대외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대한불교법화종(종무원장 관효)은 6월 27일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남북평화통일과 국가경제 회복 기원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제7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화종은 종정 도선 스님의 교시와 함께 제20대 집행부에서 진행 예정인 종단 진흥책도 발표했다.

종정 도선 스님은 "종단 사부대중에 이르노니 창종 77주년을 맞아 대중화합과 원융살림에 진력을 다하라"며 "특히 전법포교가 없으면 종단 발전도 없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포교원이 복원된 만큼 종도대중이 힘을 모아 포교에 힘을 모아달라"고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학술, 문화예술, 신행의 3대 분야에서 창종 80주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전했다. 스님은 "20대 기조인 '참회와 혁신으로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에 역점을 둔 것에 이어 전법과 포교에 진력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올해 종단 통일가사 불사를 추진하고, 11월 총본산 안정사에서 가사 합동점안과 가사 수여식을 봉행한다"며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개종조 혜일 정각 스님의 법화사상을 고찰하는 학술 대회를 비롯하여, 법화종 영산재 시연, 창작국악교성곡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총본산 안정사 또한 종단 안정사운영발전위 구성과 함께 재단법인화도 시사했다. 스님은 "총본산 안정사에 집약된 지원과 열정을 쏟아부어 총본산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 종단 기관과 합동회의를 통하여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종단 내실을 다지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로원 의장 보명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창립을 발기하고 발족시킨 종단으로서 교세가 당시 맹위를 떨쳤다. 법화신앙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법화행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며 "새로운 종단 부흥을 이끌 총무원 집행부가 주요 종무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어 든든한 마음 그지없다. 종단 미래를 향한 구체적 과제가 발표된 만큼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종단 각 기관과 종도들이 다함께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창종 제77주년을 맞은 대한불교법화종 창종기념법회에 참석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종단발전을 서원하며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종정 도선 스님 교시 내려
"전법포교 통한 발전" 당부
새로운 포교원 구성과 함께
총무원장 관효 스님 비롯한
집행부 2년차 계획 발표해

종단 통일가사 불사 추진과
법화신행수기 공모전 예정
총본산 안정사 발전위 출범
법화공덕회 발족 등도 눈길

법화종 원로의원 암현 스님은 "종교인구 감소 속에 법화 포교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법화행자들이 원력을 세우고 뜻을 함께해 제세안민과 홍법호국을 이뤄내리라 믿는다"고 축사를 전했으며,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도 "대중화합과 원융살림으로 재결집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승가정신 회복에 가일층 정진하고 있다"며 "종단 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신임 포교원장 일우 스님은 "법화 공덕회 결성과 온라인 활성화, 전국신도회 결성 및 종립교양대학 설립, 전법사 배출 등을 이끌겠다. 전법 활성화를 위한 법화공덕회 가입에 여기 계신 종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함께 해달라. '생동하는 포교, 법화 미래를 열자'를 기치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창종기념법회는 지역교구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강원교구에서 열리게 됐다. 법화종 강원교구는 3개월 넘게 이번 창종법회를 준비했다. 법화종 강원교구는 창종기념법회에서 영월군 장학회와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각각 200만원을 전달했다.

법화종 강원교구 종무원장 승일 스님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77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되어 자치도 앞날에 부처님 가피와 법화공덕이 함께 할 것"이라며 "강원교구는 깊은 화합을 바탕으로 홍법 호국과 제세안민의 종지를 받들어 법화종도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창종기념법회에서는 경북교구 대종사 도광 스님과 대종사 법원 스님이 원로의원으로 선임되어 종정 도선 스님으로부터 선임장을 받았으며, 부산교구 종무원장 법경 스님, 강원교구 종회의장 지우 스님, 전라교구 미륵암 주지 법연 스님, 충북교구 동가섭사 주지 도광 스님, 부산교구 종회의장 수월 스님, 김창교구 백련사 주지 정원 스님, 직할교구 약수암 주지 혜주 스님 등이 공로패를 받았다. 또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축사가 법상종 총무원장 혜월 스님 대독을 통해 전해졌으며, 영월불교사암연합회장 삼혜 스님과 최명서 영월군수, 심재섭 영월군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창종기념법회는 권계화 강원교구 법상사 신도회장의 선창 아래 대중들이 발원문을 함께 낭송하며 막을 내렸다.

법화종도들은 발원문을 통해 "온 누리 수승한 공간마다 통일도량을 함께 세우며 묘법의 연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흔일곱번째 법화보탑을 쌓은 오늘 이 인연공덕으로 무상보리 이루는 길이 고루 닦아지길 기원한다"고 마음을 모았다.

한편, 이날 창종기념법회에는 종정 도선 스님을 비롯하여 원로의장 보명 스님, 원로부의장 근파 스님, 원로의원 농파 진파 암현 도광 법원 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 포교원장 일우 스님, 종회 수석부의장 법연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 강원종무원장 승일 스님, 부산종무원장 법경 스님, 경북종무원장 해월 스님, 충북종무원장 지성 스님, 마산종무원장 현진 스님, 김창종무원장 송열 스님, 창녕종무원장 법상 스님, 경주종무원장 혜문 스님, 전라종무원장 정각 스님 등 전국 종무원 종도, 총무원 총무부장 현묵 스님, 사회부장 청암 스님, 교무부장 법경 스님, 감찰부장 원담 스님 등 종단 교역직 스님과 종도 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500년 전 월남사지 대웅보전 복원되다

월남사, 대웅보전 낙성 · 삼존불 점안법회

고려시대에 조성된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 월남사에 500년 전 대웅보전이 복원됐다.

전남 강진 월남사(주지 법화)는 6월 24일 옛 대가람의 기록을 찾아 복원불사를 시작한 지 11년 만에 삼존불 점안식과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을 증명으로 낙성한 대웅보전은 고려시대 양식을 복원해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 팔작지붕양식 27평의 크기로, 원래 발굴된 금당지 유구 위에 세웠다. 이날 낙성한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아미타, 약사여래 삼존불이 모셔져 점안했다.

보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당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법화 스님과 대중들의 원만한 노력으로 부처님 법이 천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법당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월남사가 천년의 세월 동안 중생들을 행복을 전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월남사 주지 법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조계종 월남사가 시작된 날이 2012년 6월이다. 막연했던 월남사가 11년 동안 발굴 10여 차례, 옛 월남사 인법당을 해체하고 임시법당에서의 7년, 그리고 천년을 한결같이 이 도량을 지켜온 삼층석탑을 3년에 걸쳐 해체 · 보수했다"며 "부처님 일은 주지의 힘이 아닌 도량의 힘이고 부처님의 가피였다. 동참 대중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치사에서 "전쟁의 화마로 소실된 월남사 대웅보전 복원은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예전의 모습과 가치를 품과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며 "월남사지 복원이 이뤄진다면 월출산과 함께 강진을 대표하는 명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 강진 월남사는 6월 24일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월남사지는 지난 1994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시굴조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차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7월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웅보전 복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2021년 본격적인 복원 설계에 들어가 월남사지삼층석탑의 조성시기로 추정되는 고려 중기의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계획해, 기존 금당지의 기단 지대석을 재사용하여 이날 낙성식을 봉행했다.

월남사 신도회는 대흥사에 승려복지기금 300만원을, 강진군에는 장학금 300만원을 각각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대 불교회 창립…대학생 포교 견인

6월23일 빛고을포교원서 법회
초대 지도법사 연상 스님 모셔



광주 지역 대학생, 청년 포교를 견인하기 위한 대학교 불교회가 새로 창립됐다.

광주 지역 종합대학인 호남대 불교회는 6월 23일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새로 창립된 호남대 불교회는 전현진(뷰티미용과), 진경미(항공서비스), 강현주(한국어), 신선혜(교양학부), 왕루(시각융합디자인), 손완이(중국어), 김신정(교양학부) 등 교수 7명이 참여해 학생들을 위한 포교활동을 펼친다. 학생으로는 회장 김소은(뷰티미용), 부회장 임준(뷰티미용) 학생 등 11명이 동아리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첫 지도법사로 취임한 주지 연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모두가 행복했으면 한다. 행복하기 위해 조금 더 자주, 길게 행복하기 위해 지혜로워야 한다"며 "불교공부를 통해 그 행복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성 스님은 첫 출발한 교수와 학생 불자들에게 불교성전과 108염주, 단주 등을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광학원 제15대 이사장 자공 스님 취임

6월 28일 취임법회 봉행



광주 지역 불교종립학원인 학교법인 정광학원 제15대 이사장에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이 취임했다.<사진>

6월 28일 정광학원 대승원 법당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자공 스님은 "선배 스님들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학원을 설립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교육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한 탄자니아 학교설립에 대한 예를 든 자공 스님은 "교육은 교사가 바뀌어야 학생이 바뀌고, 학생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장애인 초청 잔치 한마당

2회 장애인 사랑나눔 어울림마당
시·청각, 지체장애인 150명 초청
공연·장기자랑으로 즐거운 하루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 반찬봉사단은 6월 23일 쌍봉사 앞마당에서 지역 장애인 150여명을 초청해 '제2회 사랑나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진안군관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꿈드레, 보듬청소년복지관 등과 진안군 사회복지사협회, 쌍봉사 섬김봉사단, 반찬봉사단 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나눔과 봉사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이날 어울림 한마당은 주채연 등 초청가수들의 공연과 장애인들의 장기자랑, 봉사자들의 축하공연 등으로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또한 쌍봉사 보경 스님과 불자들, 섬김봉사단, 반찬봉사단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장애인들의 고충과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보경 스님과 섬김봉사단, 사회복지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맛난 음식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며 잘사는 진안, 행복한 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예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해오고 있던 중 좀 더 폭을 넓혀 진안 지역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마련했다" 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모두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작은 정성이지만 준비한 음식을 맛나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붕선교종, 일붕존자 27주기 다례재

6월 26일 서울 종로 일붕선원서



세계 초대법왕인 일붕 서경보 존자의 열반 27주기를 맞아 생전 주석처였던 서울 종로구 일붕선원에서 추모다례재가 열렸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은 6월 26일 일붕선원서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총무원장 혜일 스님을 비롯하여 원로의장 대륜, 명예이사장 경원, 재단이사장 일명, 종회의장 도정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일붕존자께서는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제안 후 세계 30여 불교국 지지로 1992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만장일치로 세계불교 초대법왕으로 봉대 받았다. 1990년 한국불교 최초로 세계불교도 서울대회를 유치하였으며, 불교 위상을 높였다"며 "일붕선교종 전 종도들은 존자의 가르침을 이어 화합하고 단결하여 유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12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혜일 스님은 이번 다례재에 이어 적극적인 종단 활동의 기치를 걸고 역할을 맡은 각 임원 스님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재단법인 이사장 일명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일붕존자께서는 수행자의 귀감이었으며 자랑스러운 스승이셨다.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정진하여 중생제도의 서원을 실천해가자"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일붕존자께서는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지내시고 해외 유수대학 교수 등을 지내며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셨다.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 오지까지 전 세계 157개국을 종횡무진하신 스님은 대사상가이자 세계평화에도 기여한 평화운동가"라며 "종단 발전과 함께 종도들의 정진은 불교중흥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창 선운사 아미타 염불 철야정진 재개

코로나 19이후 4년만… 100여 염불행자 동참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아미타 염불 철야정진 법회를 재개했다.

선운사는 6월 24일과 25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아미타 염불수행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진행된 입재 법회는 동효 스님을 비롯해 지도법사 청목 스님과 선운사 재무 수찬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아미타 염불 행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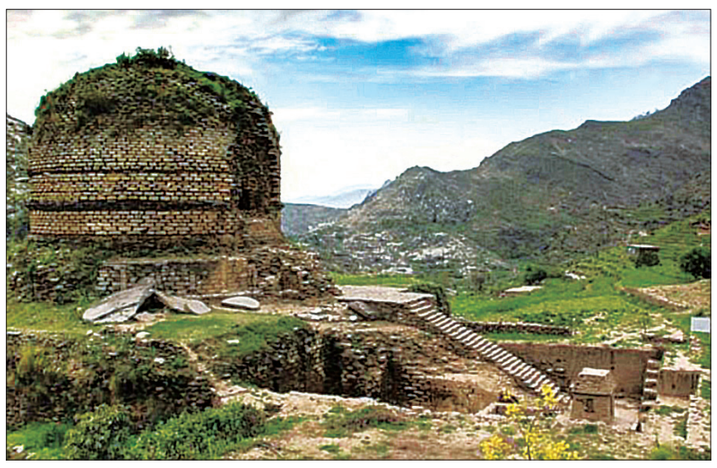
아미타염불수행을 지도해온 동효 스님은 "수행은 반복의 연속으로 반복되다 보면 싫증나기 마련"이라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법이니 다 함께 모여 수행법을 익혀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中, 파키스탄 불교 후원 속내는?

'소프트 외교' 내세우며 지원
종교 자유 침해 우려 목소리
"자국 통제 하는 것" 해석도
이웃 국가 영향력 행사 우려

박영빈 객원기자


파키스탄 스와트 지구에 산재한 고대 불교유적지. 사진출처=비터윈터

현재 이슬람국가로 더 널리 알려진 파키스탄. 그러나 고대의 파키스탄은 아시아 불교의 중심지로 당시 불교 철학과 문화가 교차하는 중심지였다. 이러한 불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불교'의 복원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지난 6월 17일, 인권 전문 매체인 '비터 윈터'는 중국의 파키스탄 불교 후원에 대한 논평을 보도했다.

비터 윈터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불교 국가들을 제외하고, 현재 파키스탄에 대한 주목이 점점 집중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터 윈터 측은 "스와트 계곡에 산재한 불교사원과 불탑 유적지 등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등 파키스탄이 점차 새로운 불교 순례지이자 불교사의 중심지로 홍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파키스탄 불교의 복원과 유지에 "가장 주요한 후원자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에 산재한 불교 유적지와 페샤와르의 간다라 대학의 발굴과 유지, 연구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고대 불교의 중심지였던 스와트 지역이 8세기경 티베트에 처음 불교를 전한 파드마삼바바의 출생지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면서 중국 불교도들을 비롯해 해외순례자들을 유치하는 홍보에도 중국의 영향이 강하다.

이탈리아의 종교학자 마시모 인트로비네 박사는 "전통적으로 파드마삼바바의 출생지인 '오디야나'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의 스와트 지역과 인도의 오리사주, 혹은 카슈미르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마시모 박사는 "오디야나가 실제로는 신화적인 장소라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어쨌든 중국은 사람들이 그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고 믿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의 종교학자 찬단 쿠마르 박사는 이에 대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티베트 불교를 계기로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미지로 중국은 고대의 중국과 같이 국제 불교계에 중심에 서려한다"면서 "중국의 전형적인 소프트 외교의 일환이지만 이것을 단순한 문화적 행보로 보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제불교연합체들은 단순히 우국의 친불교적 행보가 불교를 중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비터 윈터 측은 중국이 '불교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통적으로 불교의 발상지나 중심지로 생각된 인도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중국을 종교의 주요 국제 중심지로 홍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특히 "달라이라마 후계 문제 등을 둘러싼 티베트 불교계의 주요한 이슈를 선점하고 타 불교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 시도"라고 평했다.

마시모 박사는 "중국은 현재 국제 불교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달라이라마에 헌신하는 티베트 불교도들을 중국정부가 통제하는 중국불교협회 내에 흡수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 속내는 단순히 불교의 진흥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 당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종교단체들, 또한 불교의 자유로운 신행활동과 표현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만 불교계, 남아프리카에 자비행

쯔치 재단, 말라위에 학교 건설
진료 위한 의료공간 건설 계획



대만의 한 불교계 자선 단체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해 화제다. 〈사진〉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가 6월 2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에 본부를 둔 불교계 국제 인도주의 단체 쯔치 재단(Tzu Chi Foundation)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말라위(Malawi)에 위치한 치구지우(Chigoujiu) 마을을 방문해 아동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다.

해당 매체는 "치구지우 마을은 2022년 사이클론 아나(Ana)에 이어 올해 초 프레디(Freddy)까지 덮쳐 황폐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을의 재건을 돕기 위해 온 쯔치 재단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고 밝혔다.

쯔치 재단은 이번 치구지우 마을 재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우물을 지어준데 이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도 건설했다.

당초 1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학교는 개교하자마자 정원을 초과할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쯔치 재단은 위생 및 의료 지원의 일환으로 의무 공간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마을 촌장 자바두(Javadu)씨는 "쯔치 재단의 재건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민들이 삶의 질이 매우 향상됐다"며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기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쯔치 재단은 1966년 대만의 비구니 스님인 청옌(Cheng Yen)이 설립했다. '자비심의 실천'을 기조로 인도적 지원,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 51개국에 약 1천만명의 자원봉사자를 보유한 UN 승인 NGO다. 해당 매체는 "청옌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와 같은 큰 자비와 연민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며 "진정한 연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동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비행으로 발현돼야 한다고 강조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88세 생일 맞는 달라이 라마 라다크 방문

7월 10일, 레 도착…8월 25일까지 일정 소화



오는 7월 6일 생일을 맞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가 중국과 접경 지역인 인도 레(Leh)의 라다크를 방문한다.

라다크불교협회는 인도 매체 인디안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와의 6월 2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달라이 라마가 오는 7월 10일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 지역인 레에 도착해 8월 25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의 레 방문은 1년 만이다.

라다크불교협회 레그진 도르제이(Regzin Dorjay) 청년부 회장은 "달라이 라마가 레에 도착한 후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한 뒤 초캉 비하라 수도원(the Chokhang Vihara monastery)을 방문한다"며 "이후 람돈 모델 시니어 스쿨(Lamdon Model Senior Secondary School)을 방문한 후 21~23일 라다크의 초그람사르(Choglamsar) 마을에서 설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달라이 라마의 이번 설법 주제는 '카담파(Kadampa)의 걀세이 톡미 장포(Gyalsey Thokmé Zangpo, 1295-1369)의 37가지 보살 수행'이다.

달라이 라마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라다크불교협회의 초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이 지역 방문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당시 중국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달라이 라마의 생일을 기념해 인도에 초청한 것을 두고 "인도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티베트 관련 문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는 "달라이 라마를 자국의 영예로운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박했다. 달라이 라마도 "싸움은 '나의 나라' '나의 이데올로기(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너무 편협한 접근"이라며 "이제 더 많은 중국인들이 달라이 라마가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이 (티베트에) 의미 있는 자치권을 부여하고 티베트 불교 문화의 보존을 (보장하기) 바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불교대표단, 바티칸 방문…종교간 우의 나눠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와 회담
묵상 기도로 모든 이들 평화 기원



바티칸에서 만난 태국불교대표단과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 사진출처=바티칸 뉴스

태국 최고 승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태국 불교대표단이 가톨릭 교회의 중심인 바티칸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이틀간 바티칸을 방문하여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와 회담을 하고 함께 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6월 15일, '바티칸 뉴스'는 양 종교간의 대화와 우정에 대해 보도했다.

6월 15일 로마의 아우구스티노 대학에서 열린 태국 불교대표단과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의 회담은 1분간의 묵상기도로 시작됐다. 기도의 주제는 '진정으로 모든 이를 지금 여기로 이끌기'로 종교를 떠나 모든 이들의 일치와 평화를 기원했다.

이틀간 열린 이번 회담에서 태국 불교대표단은 태국 최고 승가 위원회, 왓 프라 체투폰 승가회의, 해외 담마다투 비구 호법부, 프라자티폭 왕립연구소 등의 출재가를 비롯한 80여 명의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가톨릭 측은 종교간대화 평의회 의장인 아유소 기소 추기경을 대표로 종교간대화 평의회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태국 불교 대표단은 당초 교황과 직접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최근 교황이 대장 탈장 증세로 긴급 수술에 들어가면서 직접 면담은 불발됐다. 대신 이들은 최고 승가위원회 의원인 솜뎃 프라 마하티라찬 스님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교황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은 태국 불교계와 태국 가톨릭 치앙마이 교구를 대표해 이탈리아어로 작성됐으며 두 종교 간의 형제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서한에는 불교대표단이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무덤을 참배하는 등 바티칸에서 두 종교간의 대화를 위해 이룩한 활동들을 언급했으며, 교황의 쾌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아유소 추기경은 태국 불교대표단의 기도와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불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기쁨과 같은 슬픔, 같은 우려와 같은 전망'을 공유한다"며 두 종교간의 일치점을 말했다. 또한 "가톨릭과 불교의 두 대표단의 만남은 진정으로 함께 진리를 위해 순례를 떠나는 벗과 같으며, 교황도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티베트불교 역사상 『입보리행론』에 가장 정통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톡메 상뽀가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해설서이다.
톡메 상뽀 저, 수다지 켄포 한역, 지엄 한글 편역/신국판/양장/640쪽/값 40,000원

周易禪解
우익지욱 선사
『주역선해』의 현대적 강설!
우익지욱, 『주역선해』를 통해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생계 폭포 절경을 감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가족 참가자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올 여름엔 특별한 템플스테이 어때요?

전국 27개 사찰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운영

숲길포행, 명상, 물놀이 등 여름 맞이 프로그램 '풍성'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올 여름. 의미 있는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템플스테이가 어떨까. 올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에서는 산사의 숲길에서 포행하고 싱잉볼 명상을 체험하며 힐링을 하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고, 자녀와 캠핑을 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전국 27개 사찰에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고 6월 27일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여름 캠프와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산사에서 즐기는 물놀이, 싱잉볼 명상, 어린이 요가, 뇌크리에이션 등과 함께 염주 만들기, 탁본체험, 단청 채색, 발우공양 등의 다양한 체험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친 일상의 재충전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있다. 스님과의 차담, 명상(호흡명상, 트레킹명상, 마음챙김 명상 등), 숲길 포행, 선무도 수련, 마음충전을 위한 감정수업 등이 마련돼 있다. 전통다식 및 한과 만들기, 사회 초년생을 위한 어른수업과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템플스테이도 눈여겨볼만 하다.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올해 여름휴가는 자연에서 보내는 산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시원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사찰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일정

권역	사찰명(지역)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 일자	참여 가능 연령대
서울	조계사(종로구)	연꽃마당 가족템플스테이	연꽃 사진 찍기, 다도체험, 싱잉볼 명상, 108배, 템플투어, 예불	8월5일~6일(1박2일)	초등학생 및 부모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만 참여 가능)
	봉은사(강남구)	스님과의 수행정진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명상, 예불, 108배, 대나무숲길 명상길 산책, 스님과의 차 한잔과 마음나누기, 1인 1텐트 쉼과 취침, 사찰음식 도시락 공양 등	7.1~8.30까지 (1박2일 또는 2박3일)	고등학생부터 (미성년 보호자 필히 동반)
	국제선센터(양천구)	어린이 여름캠프 템플스테이	마인드래치 및 싱잉볼 명상 체험, OX 퀴즈, 도어벨 만들기, 단주 만들기, 다도 체험, 어린이 요가 등	7월22일~23일	초등학생
부산	홍법사	여름방학 어린이 작심 단기출가	108배, 걷기 명상, 만들기, 그리기 체험, 뇌크레이션, 물놀이, 전통문화배우기, 캠프파이어 등	8월 7일~13일 (6박7일)	초등학생 4~6학년 30명(선착순)
인천	전등사(강화)	사회 첫걸음을 위한 '어른수업' 특별 템플스테이	기본 사찰 예절, 발우공양, 명상,운력, 타종체험 1. 연애 잘하기(나와 맞는 사람 만나는 방법) 2. 사회생활 잘하기(거절 잘하는 방법) / 삼랑성 숲 이야기(생태체험), 108염주 만들기, 삼랑성 포행, 스님과의 대화	7월25일~27일 (2박3일)	성인 (20~30대)
		마음 충전을 위한 '감정수업' 특별 템플스테이	기본 사찰예절, 발우공양, 명상, 운력, 타종체험 1. 감정수업: 나는 어떤 사람일까? 2. 감정수업: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3. 감정수업: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똑같은 사람만 만날까? / 삼랑성 숲 이야기(생태체험), 싱잉볼 테라피, 108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8월1일~4일 (3박4일)	성인 (30~50대)
광주	무각사 무각사	어린이 템플스쿨	국보만들기, 해피명상, FUN물총놀이, 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 팥빙수만들기 등	7월23일 당일형 (09:00~17:00)	초등학생 40명(선착순)
		선재숲 템플	불교예절, 다도체험, 민화체험, 내몸 알아차림 명상, 팥빙수만들기 등	8월6일 당일형 (09:00~17:00)	중,고등학생 40명(선착순)
경기	대원사(가평)	2023 대원사에서 여름을 즐기다	사찰양갱 만들기, 전통다식 만들기, 달멍별멍때리기, 명상, 소원주 만들기, 계곡 물놀이, 스님과의 차담	7월1일~8월30일까지(1박2일)	초등학생 부터
	화운사(용인)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마음챙김 명상, 숲속 산책, 마음쓰기(글쓰기와 대화), 유연한 발우공양	• 1차:7월21일~23일 (5,6학년 여학생) • 2차:7월28일~30일 (5,6학년 남학생) • 3차:8월4일~6일 (중등 여학생) • 4차:8월11일~13일 (중등 남학생) (2박3일)	초등학생 (5~6학년) 중학생
	법륜사(용인)	2023년 법륜사 어린이 산사 수련회	소원등 만들기, 그리기 명상, 스님과의 차담, 물놀이, 발우공양, 타종체험 등	7월28일~30일 (2박3일)	초등학생
강원	삼화사(동해)	무릉계곡 삼화사 「명상」 템플스테이	자율명상, 호흡명상, 트레킹명상, 자비명상, 일상명상, 새벽예불, 차담 등	7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2박3일)	성인
경북	직지사(김천)	「마음 통통! 함께 성장하는 우리!」 직지사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불교예절 배우기, 화엄놀이, 팔모등 만들기, 불교교리 맞추기 대회, 물놀이, 소감 나누기 등	8월4일~6일 (2박3일)	김천, 구미, 상주, 문경 등 초등학생 50명 예상
	축서사(봉화)	[백두대간수목원 연계] 쉬고 쉬고 참선체험	명상체험, 걷기 명상(백두대간 수목원), 스님과의 차담, 108배 및 염주만들기	• 6월30일~7월2일 • 8월 4일~6일 (2박3일)	모든연령가능 (초,중학생은 보호자동참)
	골굴사(경주)	주말_템플스테이 (선무도 야외수련 및 야외 명상)	바닷가 트레킹과 선무도 수련	매주 금~일(2박3일)	초등학생부터 가능
		2023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선무도 수련, 불교 강의, 승마, 국궁, 국악 배우기, 다도, 발우공양, 소원등 만들기, 감포 깍지길 걷기 등	7월31일~8월5일 (6박7일)	초등학생 중학생

권역	사찰명(지역)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 일자	참여 가능 연령대
경남	옥천사(고성)	가족과 함께 하는 여름 캠핑 템플스테이	연꽃등 만들기, 편백 숲 걷기 명상, 스님과의 차담	7월22일~23일 (1박2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20가족 (선착순)
		청소년 여름 캠핑 템플스테이	자방루 명상(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편백 숲 걷기 명상, 스님과의 차담	7월29일~30일(1박2일)	중 · 고등학생 30명 (선착순)
	성주사(창원)	성주사 보리수 템플스테이 (친절과 감사의길, 손길, 마음길)	마음챙김(손그리기), 몸으로 느끼는 부처님 세상(참선, 삼보일배, 사불, 탑돌이), 내마음의 소리(친절 주문 들려주기), 신나는 물놀이, 위로의 손길(바디스캔), 산따라 물따라(스님과 함께하는 걷기명상)	8월3일~5일 (2박3일)	초등학생 100명 (접수 7월1일 선착순)
		슬링이며 힐링 템플스테이	컬러 차담(만나기), 오감 명상(비우기), 아로마 원석 팔찌 만들기(채우고 담기) 체험	7월16일/8월20일 (당일형)	성인
전북	금산사(김제)	*체험형 – 2023 여름! 나만의 여유를 즐기다	스님과의 차담, 108배 및 염주 만들기, 스님과 모악산 포행, 단주 만들기, 탁본체험	7월1일~9월30일까지 (3개월간) (1박2일)	초등학생부터 성인
		*휴식형 – 2023 여름! 그저 쉬기만 하세요	공양 시간 외 스스로 만족하는 시간 만들기	7월1일~9월30일까지 (3개월간) (1박2일)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
	실상사(남원)	2023 여름 배움의 숲	스님과의 차담, 좌선 정진, 생명평화백대서원 절명상, 스님과 공부	7월27일~8월13일까지 (4박5일) (세 차례 운영)	성인
전남	백양사(장성)	백양사 여름방학 어린이 마음캠프 2023 [연꽃아이] Templestay	마음거울명상, 연꽃아이들아 맘껏 놀아봐!, Like Buddha!(스님의 영어진행), 백양사 워터피아, 숲속 작은음악회(음악놀이), 마음꽃 피우기 등	8월 4일~5일 (1박2일)	초등학생 50명(선착순)
	대흥사(해남)	2023 여름가족특별 템플스테이	스님과 차담, 108염주만들기, 반딧불이 달빛걷기, 일지암 산행, 범종 체험 등	7월1일~8월31일 (1박2일)	모든 연령(초, 중학생은 보호자 동반참여)
충북	반야사(영동)	"Let it go Templestay	스님과의 차담, 타종체험, 만다라 명상 등	7월1일~8월31일 (주말형 1박2일) (체험형)	초등학생부터 가능
충남	마곡사(공주)	산사음악회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관람, 명상길 걷기, 차담, 108염주 만들기 등	7월1일~2일 (1박2일)	전 연령대
		2023년 마곡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오계수계식, 합장주만들기, 부처님과 단청 채색, 목장체험, 피자만들기, 성불도놀이, 물놀이 등	7월27일~29일 (2박3일)	초등학생 1~3학년 30명(선착순)
	수덕사(예산)	차와 요가가 있는 선수행 체험	참선, 차명상, 요가 등	8월6일~8일 (2박3일)	성인
	서광사(서산)	서산 Tour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서산 근교 Tour, 문화유적지 탐방 *용현리마애삼존불(국보84), 해미읍성 *간월암 (바닷가), 새박물관 – 선택사항입니다	7월22일~23일 8월19일~20일 (1박2일)	가족, 성인(대학생 이상)
		치유와,힐링템플스테이 (쉬어가세요)	*도자기 체험 *한과 만들기 체험	• 7월 8일~9일 (한과 만들기) • 7월15일~16일 • 7월29일~30일 • 8월12일~13일 (한과 만들기) • 8월26일~27일	
	갑사(공주)	계룡산갑사구곡에서 여름을 이기다	보물투어, 타종체험, 가마니길 걷기, 갑사구곡 트레킹, 108여의보주 만들기	• 7월25일~27일 • 8월까지 매주 화~목(2박3일)	성인, 중고생
세종시	영평사(세종)	2023년 영평사 어린이 숲속 행복 캠프	전통단청 체험, 숲속 체험, 차 명상, 물놀이, 풍경만들기, 108염주 만들기, 발우공양, 장기자랑 등	7월21일~23일 (2박3일)	초등학생 100명(선착순)
제주	금룡사(구좌)	행복한 여름^^ 아이들의 세상	마음챙김 활동(마음챙김 손그리기), 명상, 타종체험, 단주만들기, 물놀이(김녕 성세기해변)	7월 8일~9일 (1박2일)	제주도내 초등학생 3년~6학년

※사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초심자의 첫 마음을 다져주는 불교의 명문장

치문경훈

緇門警訓

현진 옮김 | 728쪽 | 양장 50,000원



옮긴이 현진玄津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월운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중앙승가대학 역경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뿌나에서 산스끄리뜨 및 빠알리어를 수학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범어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및 편역서로는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중국정사조선열국전』, 『산스끄리뜨문법』·『빠알리문법』, 『빤짜딴뜨라–다섯 묶음으로 된 왕자 교과서』, 『담마빠다–고려가사·한문·빠알리어로 읽는 게송과 배경담』 등이 있다.

스님들이 경전과 어록보다도 먼저 공부하는

불교의 명문장 모음집, 『치문경훈』!

꼼꼼한 번역과 상세한 용어 풀이로 읽는 동양 고전의 지성!

불문(佛門)에 들어온 초심 수행자를 위한 옛어른들의 경책과 교훈을 모은 책, 『치문경훈』! 예비 스님인 사미·사미니는 경전과 어록보다도 먼저 『치문경훈』을 공부하며 어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난자(難字)가 가득한 원문을 읽고 해석하며 한문으로 된 불서(佛書)를 읽고 공부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져 나간다.
이 책은 역경 불사에 매진하겠다는 서원으로, 불교 경전을 기록한 모든 언어에 능통한 현진 스님이 193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강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진호 스님의 『정선 현토 치문』을 꼼꼼히 번역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명과 지명을 비롯한 용어들과 한자의 용례에 대해 상세하게 주석을 달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다. 이를 통해 한문학적 지식과 더불어 불교 경전과 어록, 그리고 사서삼경 등에 녹아 있는 동양 고전의 지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6~7/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사유수	6	초기불교 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2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내면 소통: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 근력 훈련	김주환	인플루엔셜
3	금강경 오가해(불광선문총서4)	무비	불광출판부	8	아비담마 길라잡이(2)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4	붓다의 말씀	냐나틸로카/김재성	고요한소리	9	숫타니파타(빠알리대장경/쿳다까니까야)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5	기도 성취의 지름길	우룡스님 지음	효림	10	자타카전서:부처님본생이야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책세상

순수한 붓다 가르침 만나고 싶다면…



담마빠다

이중표 역주

불광출판사 / 2만5000원



가장 널리 읽히는 불교 고전 〈법구경〉
석학 이중표 명예교수가 우리말로 옮겨
우리말 〈담마빠다〉 새로운 표준을 제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서고금을 아우르며 널리 읽히는 책을 우리는 '고전(古典)'이라고 한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을 꼽자면 단연 〈담마빠다〉(법구경)다.

〈담마빠다〉는 붓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담마(dhamma)'와 시구(詩句)를 의미하는 '빠다(pada)'의 합성어로써 '진리의 말씀' 혹은 '깨달음의 노래' 등으로 번역된다. 문자가 없던 시절 암송되어 오던 가르침을 훗날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총 26품 423개의 게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초기경전 5부 니까야 가운데 〈쿳다까니까야(Khuddakanikāya)〉에 수록됐다.

1행이 8음절인 4행의 법구(法句)로 이루어져 있는 운문 형식의 〈담마빠다〉는 빠알리어로 소리 내어 읽으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된다.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절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본연의 리듬감이 퇴색되어 버린다. 기존 번역서들이 가진 문제점은 대개 여기에서 비롯된다. 운율을 살리기 위해 종종 단어의 배치를 바꾸거나 생략하다 보니 뜻이 왜곡되거나 모호해져 버리고, 반대로 직역에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 문장이 투박해져서 원전의 글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불교 석학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가 최근 역주해 발간한 〈담마빠다-법구경, 깨달음의 노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역자는 철저한 사전 작업을 통해 기존 번역서들의 오류를 면밀히 파악하고, 빠알리어 경전과 사전을 폭넓게 검토해 단어들의 다양한 용례를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새롭게 원전을 번역하면서 기존 번역서들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표현의 적확성을 높이고, 문맥을 해치지 않는 의역을 통해 가독성과 리듬감을 살렸다. 더불어 빠알리어 원문과 한역(漢譯) 〈법구경〉의 원문도 함께 실어서 한글 번역과 원전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원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본래의 뜻과 의역한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기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 각기 다른 배경 문화와 표기법을 가진 두 언어를 완벽하게 일치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번역과 나쁜 번역을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원전의 뜻을 있는 그대로에 가깝게 전달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번역자의 언어 활용 능력뿐 아니라 원본 텍스트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지난 30여 년 동안 니까야 시리즈(〈정선 디가 니까야〉 〈정선 맛지마 니까야〉 〈정선 쌍윳따 니까야〉)를 선보였던 이중표 명예교수에게도 〈담마빠다〉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첫 완역 책이기 때문이다.

'처음'인 만큼 역자는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거듭 퇴고하면서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신중하게 골랐다.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불교 경전을 접하고, 조금 더 바르게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하고픈 마음에서다.

나아가 평소 불자들이 〈담마빠다〉를 가까이하면서 탐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가볍고 튼튼한 가죽 재질의 표지와 휴대하기 편한 아담한 크기로 책을 만들었다.

생전 법정 스님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삼아 자주 〈담마빠다〉를 펼쳐본다고 하셨다. 그만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삶에 귀감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서다. 헤매는 마음에 길을 밝혀 주는 가로등과 같은 말, 나태해진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책과도 같은 말,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여 주는 따스한 격려의 말들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다.

많은 선지식들이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어렵지 않다. 〈담마빠다〉 역시 어렵지 않다. 〈담마빠다〉에 수록된 423개 게송들도 짧고 간결하며, 그 안에 담긴 붓다의 가르침도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붓다의 순수한 가르침이 〈담마빠다〉엔 담겼다.

▲이중표 명예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해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정선 디가 니까야〉 〈정선 맛지마 니까야〉 〈정선 쌍윳따 니까야〉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불교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Dh. 001.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만든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바람이 약한 나무 쓰러뜨리듯.

Dh. 052.
모습도 아름답고
향기 좋은 꽃처럼
잘 설해진 부처님 말씀도
실천해야만 결실이 있다.

Dh. 111.
지혜 없이 어지럽게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선정에 들어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

Dh. 214.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에도 없다.

Dh. 372.
지혜 없이 선정 없고
선정 없이 지혜 없다.
선정과 지혜가 있으면
그곳에 열반이 있다.

불교·영어 함께 공부하는 교과서



불교 영어 첫걸음

안양규 지음

올리브그린 / 1만5000원



영어로 읽어 깊게 사유 할 수 있어
불교 용어 명확하게 이해도 높여줘
총5장으로 구성, 전반적인 불교내용

불교와 영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새롭게 집필됐다. 〈불교 영어 첫걸음〉은 불교 입문자가 불교 기초 지식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서적이다.

저자 안양규 교수(동국대 WISE캠퍼스)는 영어로 불교 공부할 때 얻는 이점에 대해 '깊게 사유하는 공부 태도'를 꼽았다. 안 교수는 "익숙한 한글로 적힌 불교 서적은 기계적으로 읽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며 "깊게 사유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집필 이유는 '명료성'이다. 불교와 영어는 인도유럽어족으로 비슷한 언어 구조를 보인다. 특히 언어에서 사용하는 시제와 인칭, 단수, 복수 등 문법 등이 유사해 한글과 한자로 담을 수 없었던 의미 구조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저자는 "영어로 불교 공부를 하면 얻게 되는 이점 중 하나는 중요한 불교 용어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하거나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불교는 삼국 시대 불교가 전해진 이래로 한역 경전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원래의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는 불교 원전 언어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원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자의 또 다른 책 집필 동기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현재 저자는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불교학부 대상으로 불교영어입문 강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 후 갖춰야 할 역량과 학문연구에 영어 교육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불교 영어 첫걸음〉은 불교 영문 본문과 한글 번역이 함께 이루어져 있으며 각 본문에 대한 영어 설명과 한글 설명이 주석으로 안내되어 편리성을 더했다.

목록은 총 5부분으로 'Ⅰ.불교로의 안내에서'는 불교와 붓다, 불교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Ⅱ.붓다의 생애'에서는 붓다의 전기에 대해 실었으며, 'Ⅲ.붓다의 가르침'에서는 칠불통계, 업과 윤회, 사성제, 자애명상을 담았다. 'Ⅳ.붓다의 제자'에서는 불교 공동체, 불자가 되는 법, 붓다의 제자 3명을 소개했으며, 마지막 'Ⅴ.불교 이야기'에서는 9편의 불교 이야기가 실렸다.

저자는 〈불교 영어 첫걸음〉을 영국에서 발간한 Buddhism Key Stage 1과 Key Stage 2를 기본 자료로 삼았으며, 스리랑카에서 발간한 불교 교육 도서와 불교 관련 인터넷 자료를 편집해 새롭게 구성했다.

안 교수는 "영국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누구나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쉽고 편안하게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며 "국제 포교뿐 아니라 영어와 함께 불교를 교수하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 안양규 교수는 서울대학교(종교학)와 동국대학교(불교학)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밟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경대학교 외국인 연구원,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역·저서로 〈붓다, 자기사랑을 말하다〉, 〈붓다의 입멸에 관한 연구〉, 〈The Buddha's Last Day〉등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

아이를 '꿀잠'으로 이끄는 자애명상



잘자,내 사랑!
수미 런던 김 지음
로라 왓킨스 그림
김선희 옮김 / 담앤북스
1만4000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하루 24시간 가운데 대략 3분의1을 쓰는 잠. 누구나 매일 자는 잠이지만 예부터 우리는 '잠이 보약' 이라는 말을 썼다. 그만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중요한 잠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현대사회에서 아동 수면장애가 늘어나는 요즘, 명상은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로 평가되기도 한다. 잠자리 명상 이야기 〈잘 자, 내 사랑!〉은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돕는 아동용 명상안내서다. 동화 같은 큰 이야기 줄기는 없지만 나무늘보 가족이 자연 속에서 다른 동물들과 교감하는 그림이 파스텔톤으로 담겨 독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매일 밤 달이 떠오르고 별이 빼꼼 얼굴을 내밀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요. 서로 껴안고 잠들기 전, 우리 사랑을 세상 속으로 보내요."

책의 첫 장에서 엄마 나무늘보는 새끼를 품에 안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아이를 재우려 자장가를 불러주는 부모의 모습처럼.

"먼저 아주 오랫동안 숨을 깊이 들이마셔서 배로 보내요. 배를 가득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서 숨을 크게 내쉬어요. 아! 다시 가득가득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또, 숨을 내쉬어요. 아!"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이기에 명상법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책을 읽고 직접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문장을 부드럽게 정리한 게 특징이다. 또 자애명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동물, 자연의 건강 · 안전 · 평화를 반복해서 기원하게 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 부모가 명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명상법도 따로 정리했다. 저자는 "어느 때든 우리는 이 명상을 할 수 있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특히 좋다"며 "저녁 시간은 아이가 놀이와 일과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쉼으로 전환할 때다. 걱정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연결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참으로 근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 수미 런던 김과 책 〈잘 자, 내 사랑!〉 주인공인 나무늘보 가족.

성장기 아이에게 중요한 '잠'
책 읽는 명상으로 숙면 도와
모든 것의 안전 · 평화 기원
아이 불안감 낮추는 데 효과

저자인 수미 런던 김은 미국 예일대 종교센터 불교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더럼가족명상회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수미 런던의 가족을 위한 명상〉을 펴내 '올해의 불서 10선' 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19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 '제18회 샤카디타 세계대회' 에 참가한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한 계기와 잠자리 명상의 필요성을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애명상을 10대에 배운 수미 런던 김은 자신의 아이들이 3~5살 무렵 이 명상을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명상지도자들은 잠자리 명상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며 "잠자리 명상은 아이들 숙면에 큰 도움이 됐다. 또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덜 자기중심적이며, 연민을 갖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잠자리 명상이 자기 연민, 타인과 환경을 돌보는 마음을 키워 불안감을 낮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힌 수미 런던 김. 그는 "자애명상은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는 명상"이라며 "아이들과 잠자리에서 명상하며 나와 가족, 친구, 자연 나아가 우주에까지 사랑을 나누어보라"고 조언한다.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으려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면 수미 런던 김이 안내하는 '자애명상' 으로 숙면을 이끌어보는 건 어떨까.

새로 나온 시 · 소설 · 산문

저주의 의미를 쫓다



풍수전쟁
김진명 지음
이타북스
1만6800원

〈풍수전쟁〉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달된 의문의 메시지 의도를 추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으로 향해 있는 괴이한 저주의 주문은 순식간에 대통령실을 혼란스럽게 뒤집어 놓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나서지만 메시지의 의미는 쉽게 해석되지 않고, 대통령실 행정관 김은하수가 이를 담당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겼다.

현재 시기에서 과학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토속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점철하면서 사라진 역사에 실체를 더하는 작품으로, 김진명 작가의 예리한 통찰과 질문이 쉼 없이 이어진다. 집필 30주년을 맞이한 김진명 작가가 선보이는 2년 만의 신작 소설인 〈풍수전쟁〉은 사회를 향해 망설임 없이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기다린 독자들에게 뜻깊은 소식으로 다가설 것이다.

임은호 기자

'무채색 사랑' 이야기



너무 보고플땐 눈이 온다
고명재 지음
난다 / 1만6000원

'사랑' 이라는 이상한 리듬을 말하기 위한 무채색에 얽힌 백 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무채색은 색상과 채도가 없고 밝고 어두운 차이만 있는 색을 말한다. 흰색에서 회색을 거쳐 검은색에 이르는 무채색은 그 자체로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색. 있고 없음 사이에서 존재하는 비존재의 색이다. 지은이 고명재 시인이 살펴본 무채 속 풍경은 사랑이라는 밥솥에서 끓어오르는 밥물과 같다.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려 먹이는 하얀 밥, 흰 살 생선, 밀가루, 두부, 멸치의 은빛, 능이버섯, 간장, 양갱….

고명재 시인은 첫 산문집에서 우리에게 "사랑은 화려한 광휘가 아니라 일상의 빼곡한 쌀알 위에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늘어난 속옷처럼 얼핏 보면 남루하지만 다시 보면 우아한 우리의 부피" 같은 사랑 말이다.

임은호 기자

절집 생활 70년의 단상



님께서 오신 날
설담 운성 스님 지음
도반 / 1만3000원

부처님 가르침은 머리나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과 그 마음이 다르다 했다. 그렇다면 마음의 무엇이 다른 것일까?

창원 대광사 회주인 설담 운성 스님의 선시집 〈님께서 오신 날〉에는 노스님의 인생이 담겼다. 7세에 출가해 70여 년을 절에 살며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모든 인생을 바친 노선사(禪師)의 마음이 담겨 있다. 〈님께서 오신 날〉에서는 오랜 수행으로 허공처럼 비워진 마음에 정성스럽게 불단을 놓고, 부처님을 모시고 살며 온갖 생명들과 함께하는 노선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오랜 수행으로 맑아진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함께 노니는 노선사의 마음이다.

임은호 기자

꽃은 소리 없이 핀다



계룡산에서 자연을 노래하다
견진 스님 지음
흔들의자 / 1만5000원

꽃과 나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시를 짓고, 절에 찾아오는 새들과 방과 법당에 날아오는 새와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자연인 수행자인 견진 스님은 계룡산 고왕암에서 수행하며 모든 동식물에게도 동체대비 사상을 전한다.

꽃, 나비, 산새, 자연, 깨우침 등 총 130여 편이 수록된 〈계룡산에서 자연을 노래하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불자로서의 마음과 자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겼다.

계룡산 신원사 채벽암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견진 스님은 계룡산 고왕암에서 꽃과 나비를 사랑하고 산새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자연인 수행자다. 산사에서 자연에 심취돼 꽃을 가꾸면서 산새와 나비들과 어울려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즐기며 함께 살아간다.

임은호 기자

할머니와의 '네버 엔딩'



할머니 나무
석양정 지음
풀빛 / 1만6800원

〈할머니 나무〉는 할머니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다른 생명에게 뿌리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살아 숨 쉰다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석양정 작가는 아흔 살을 맞는 할머니의 죽음이 머지않음을 느끼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할머니가 실내에 심어진 나무 같다고 생각하며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다음 봄을 기다리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죽음과 이별은 우리의 끝이 아님을, 할머니의 삶은 하나도 빠짐없이 귀하고 아름다웠음을, 할머니의 사랑이 자손들에게 연결되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는 위로를 전한다.

순간들이 마음과 마음 사이, 단단한 뿌리로 연결돼 오래 살아 숨 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미 겪은 이별도, 다가오는 이별도 조금은 덜 슬플지도 모른다.

임은호 기자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4 아이슈 무쿠암 행 2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어렵게 스리나가르에 도착한다. 그리고 이 기자는 꿈속에서 붓다를 만나고 또 다른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다.

마침내 스리나가르…붓다를 만나다

맨발의 아이들, 아름다운 사리, 장신구를 주렁주렁 단 여인들…. 차는 어느 사이에 멕레오드간지에 도착해 있었다. 날이 밝아야 출발한다고 하였다. 날이 밝자 멕레오드간지를 출발했다.

잠무 행 버스.

-델리에서 출발했을 경우 잠무를 거치지 않고 스리나가르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송 서화가에게 말했다. 계속 버스를 갈아타고 날이 뜨겁다 보니 자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오오스마 기자는 안쓰러웠던 모양이었다.

잠무에 도착해 저녁에 출발하는 스리나가르행 버스에 셋은 몸을 실었다. 언제부터인가 두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끔 오오스마 기자가 구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워 견디기가 힘들었다. 주위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곳곳마다 핸드폰을 선전하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사이사이 시멘트 광고가 눈에 띄었다. 마을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소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검문소에서 검문하는 사이 자파띠로 배를 채웠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물 몇 모금으로 입안을 적시고 다시 출발. 이번에는 소 떼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산 위에 소 임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소 떼는 움직이지 않았고 주인도 내려오지 않았다. 길바닥에 누워 되새김질하는 마지막 소 한 마리를 길가로 끌어내다시피 해서야 길이 뚫렸다.

-여기서도 스리나가르로 바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참을 나아가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그가 바로 스리나가르로 가지 않은 것도, 버스 편을 이용한 것도 스리나가르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고산병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란 천천히 적응하는 것뿐이었다. 낯선 풍경에 자꾸 시선이 갔다.

잠무를 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조용한 숙소가 있을 리 없었다. 터미널 3층에 호텔 비슷한 것이 하나 있었다. 우선 그곳으로 들어갔다. 오오스마 기자는 말이 호텔이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곳이냐는 표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무 밑이나 길거리에 주저앉지 않을 양이면 그래도 쉴만한 곳은 그곳뿐이었다. 종업원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은 반듯하고 넓었다. 침대 곁에 텔레비전도 있었다. 냉방장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땀이 질질 흘렀다. 그 흔한 선풍기도 없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먼저 목욕을 했다. 오오스마 기자가 나오자 내가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이란 것이 샤워실이었다. 찬물을 뒤집어썼더니 살 것 같았다. 늦었지만 저녁이나 먹자며 나가려고 하자 구토증이 가시지 않았는지 오오스마 기자가 두 사람만 갔다 오라고 했다.

-시내도 둘러볼 겸 같이 가시죠.

내가 말하자 송 서화가가 거들었다.

-그래요. 더운데 방안에서 한증할 일 있어요.

오오스마 기자가 그것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따라나섰다. 식당이 보이지 않았다. 터미널 뒤쪽으로 돌아가니 시장이 나왔다. 가게마다 호두와 땅콩이 쌓인 것이 보였다.

-여기가 호두나 땅콩의 주산지거든요.

오오스마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가끔 머리에 터번을 쓴 이슬람교 복장을 한 군인들이 총을 메고 지나갔다. 그제야 나는 이곳이 아직도 파키스탄과의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었다. 총을 멘 군인들의 수가 계속 많아졌다. 들어갈수록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길거리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수족이 없는 이도 있었다. 오오스마 기자에게 어린아이 하나가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송 서화가가 몇 푼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지자 오오스마 기자가 말렸다.

-주지 마십시오. 주는 걸 보면 주위의 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오스마 기자가 애들을 밀쳐버렸다. 뒤에서 뭐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가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정말 화가 나는군.

잠시 후 애들이 멀어지자 송 서화가가 투덜거렸다. 인도에 와 그가 느낀 현실들,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의 나라. 외국인만 보면 매달리는 아이들.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으며 뉴델리보다 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스리나가르로 갈수록 향신료를 더 쓰고 있다는 말인데 송 서화가는 아예 입도 대지 못했다.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1

우리를 태운 지프가 출발했다. 스리나가르까지 가는 동안 나는 몇 번이고 이름답다고 생각했다. 울창한 숲들, 때로 과수원도 보였다. 아마 사과밭인 것 같았다.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크리켓을 제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마도 크리켓을 만들어 파는 주산지가 아닐까 싶었다. 계속되는 산과 산. 양 떼를 몰고 가는 목동. 목동의 옷자락을 흔드는 바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는 그 무엇도 없다. 내가 거느리고 살던 모든 것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술에 찌들어 비틀거리는 일상도 없다. 휘황한 네온사인이 어디 있는가. 바람잡이 목동들만 있다. 저 맑은 하늘. 저 많은 목동의 눈망울. 결 좋은 바람. 하늘을 비행하는 새….

어느 사이에 스치는 풍경이 삭막하고 낯설다.



어떻게 스리나가르에 도착했는지 몰랐다. 몇 번이고 차는 앞차에 막혀 꼼짝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포장이 안 된 산길이 무너져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건 다반사였다. 아예 내려서 걷다 보면 두어 시간 후에 뒤에서 클랙슨이 울렸다. 돌아보면 옆집 아저씨 같은 운전사가 손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 스리나가르에 도착했다.

-여기 어딘가에 그 칼이 있단 말이지?

목동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파랗던 하늘. 새들의 비행. 양 떼들…. 그 무엇도 없고 날카로운 벼랑 밑을 차는 달리고 있다.

바람이 차다. 지프는 바락바락 악을 쓰며 산길을 기어올랐다. 깎아지른 산벽이 천 길이다. 꼭 도시의 건물들 사이를 비켜가는 것 같다. 산벽랑을 벗어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가도 가도 길은 끝이 없다.

스리나가르는 해발고도 1600m의 젤룸강 변을 따라 발달해 있었다. 젤룸강을 가로지르는 7개나 되는 목조다리. 그 다리와 서로 인접한 수많은 운하와 수로. 그 위로 양 끝이 뾰족하고 바닥이 평평한 시카라가 다녔다.

특히 하즈라트발 사원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곳에 예언자 마호메트의 유명한 머리카락 하나가 소장되어 있다고 했다.

달 호수에 이르자 배낭여행족들은 탄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달 호수라기에 물은 달빛처럼 맑고 푸를 줄 알았다. 지프가 멈추고 그들이 차 지붕에 묶어놓은 짐들을 내리는 사이 맡은 것은 물 썩는 냄새였다. 악취가 계속해서 코를 찔렀다. 그래도 호숫가에 피어 있는 연꽃무리가 볼만했다. 마침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석양과 연꽃, 이상한 조화였다. 썩은 물속에 연꽃이 핀다는 사실.

-어디선가 들으니 달호수에서 멋진 하우스 보트를 타고 카슈미르 차를 마시면서 엽서를 쓴다고 하더니….

송 서화가가 실망했다는 듯이 말하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호수 길이가 8킬로나 되고 폭 만해도 5킬롭니다. 저쪽 네로 공원 뒤로 가면 하우스 보트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새벽시장이 열리지요. 장관입니다. 꽃 장사도 있고 생선 장사도 있고…. 모든 것이 호수 위에 떠 있어요. 호텔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하나 같이 지쳐서인지 돌아보자는 말도, 바로 목적지를 찾아가자는 말도 내뱉지 않았다.

-우선 숙소부터 정하고 생각하지요.

오오스마 기자가 한 말이었다.

목적지가 여기서 먼 곳이냐는 말도 나는 묻지 않았다. 우선 숙소를 정하고 쉬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다.

세 사람은 숙소를 정하기 위해 집들이 즐비한 언덕을 올라갔다. 5분 정도 올라가니 호텔이 있었다. 말이 호텔이지 움막이었다. 조금 더 낳은 곳이 없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하나 같이 거기가 거기였다. 조금만 나아 보여도 정해서 들어가겠는데 비슷비슷했다. 그렇다고 물어보면 숙박비가 싸지도 않았다.

-좀 더 올라가 차라리 하우스 보트에 들까요? 여기보다 나을 것 같은데 무슬림 장식으로 지어져서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군요. 숙박비가 차라리 쌀지 모릅니다. 하우스 보트가 무려 수천 척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더 찾아보지요.

어쩐지 배에서 잔다는 것이 이상한지 송 서화가가 말했다.

중년 여인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달 호수 너머를 가리켰다. 배를 타고 달 호수 너머에 우리가 머물만한 호텔이 있다고 했다. 여기보다 시설이 좋다고 했다. 세 사람은 호수로 내려가 시카라라고 하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다.

그녀가 인도한 곳으로 가보니 그래도 조금 나아 보였다. 바로 앞이 연꽃밭이었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여기가 좋겠다고 적극적인 면을 보였다.

무슬림 특유의 장식으로 지어진 방에서 셋이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몰랐다. 송 서화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아침이었다.

어젯밤의 꿈이 문득 떠올랐다. 꿈속에서 분명히 나는 그의 글 속을 헤매고 있었다. 붓다가 든 향실이 보였다. 거기 손타라의 죽음을 보면서 침묵했던 붓다가 있었다.

내가 향실로 들어갔을 때 붓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붓다의 뇌로 들어갔다. 깨친 자의 뇌.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꿈? 희망? 서원? 붓다의 뇌로 들어갔을 때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황량한 벌판에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천천히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였다, 내가 거기 있었다.

-너는 누구냐?

또 하나의 내가 입꼬리를 째고 웃었다.

-나를 몰라?

-누구인데 내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얼떨결에 나는 내 모습을 한 그에게 그렇게 묻고 말았다. 그가 절망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따질 것 없다. 이 멍충아, 없어.

-뭐가?

-뇌 속이 텅텅 비었다는 말이다. 잘라낼 것이 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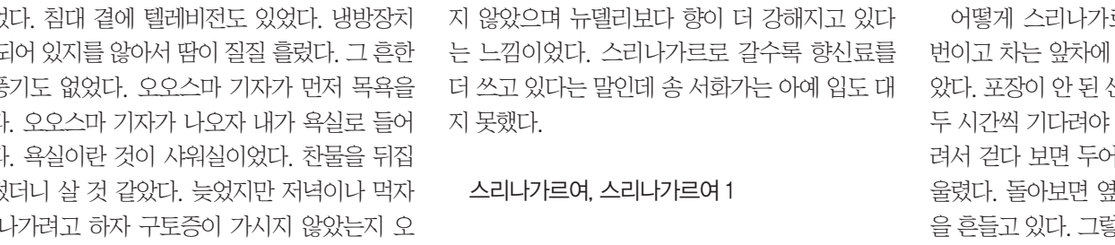
그때 머릿속으로 백정식(白淨識)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뇌 속이 비었다는 것은 꿈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앎이 끊어졌다는 말이다.

-너는 누구냐?

-왜 자꾸 묻는 거야? 바로 너이지 누구겠어.

-나는 너를 둔 적이 없다.

-하하하 너의 반쪽이지. 이리로 가자고 하면 저리로 가자고 하는…. 늘 항상 이 뇌가 문제였어. 네놈이 이놈을 만날 때마다 날 괴롭혔거든. 그래서 이놈의 희망과 꿈을 잘라내 버리려고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꿈이 없다니…. 〈계속〉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⑬ 인류 문명의 위기와 한국 간화선의 가치

▶한줄 요약
불교의 연기 세계관이야말로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 문명의 위기, 사회 정치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안의 세계관, 가치관이다.



화두 참선 통한 연기 실천, 인류 문명 대안



고양 흥국사 흥국선원에서 화두 참선하는 불자들.

인류 문명의 위기 징후들

인류 세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인간이 매우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전문가들은 동물들에게 기생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된 것은 지구 기후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늘 실감하고 있는 지구 기후 이상은 참으로 심각하다.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 저 옛날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였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급격한 기후 변동이 인류의 멸망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기후 변동은 인류 문명의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되어 있다. 산업화로 인하여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자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만큼 늘어나 지구 대기에 온실 효과를 만들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다 온도와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간다. 이것을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 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화석 연료에서 태양열, 풍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 사용으로 대체하고 나무와 숲을 보존하고 늘려야 한다.

지구 기후 이상은 결국 인류의 공업(共業)의 과보(果報)다. 인류는 산업화 이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자원을 남용하여 왔다. 그 결과 인류는 기후 이상과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났다. 결국, 인류는 지금과 같은 잘못된 문명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파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로 평가 받은 영국의 스티브 호킹(1942~2018) 박사는 죽기 전에 지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인류가 생존하려면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 떠나야 할 것이다' 고 전망하였다.

인류 정신문화의 위기

지구 기후 이상과 인류 문명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인류는 오랜 농경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자연재해나 호랑이, 사자와 같은 동물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며 총과 대포,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제 인간은 호랑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애완 동물로 사육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20세기에 인간은 지구에서 창조주와 같은 절대자의 지위에 등극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서 절대자가 된 인간은 21세기에 이르러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AI)이라는 기계와 로봇에 의해 조종당하는 신세로 전락해가고 있다.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TV,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류 지성과 문명의 위기는 인간이 정신과 물질의 조화와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한 과보이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익 추구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의 자본주의 체제를 완성하였다. 자본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동물적인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문명은 한계에 직면했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언어와 문자를 고안하고 사유와 분별을 통해 지식을 쌓고 학문을 만들어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었지만, 인류의 지식과 지성은 기후 이상과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에 의해 조종 받하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이며, 또 다른 인간 지성과 문명의 위기라 하겠다.

사회 정치의 양극화와 대립과 갈등 문제

지금 인류에게 놓인 전대미문의 위기 문제를 타개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과 소속 당파의 이익을 앞세운 이해 관계 앞에서 극단적인 양극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노와 사, 여와 야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남과 여 등 두 극단에서 대립 갈등하는 사회 정치인들은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보편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이분법의 가치관으로 보아 극단적으로 대립 갈등하고 있다.

국가와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지구 기후 이상, 탄소 줄이기 문제, 자연 에너지의 재활용, 빈부의 양극화, 일자리 창출, 도시 집중, 인공지능의 윤리적 기준 마련, 산림의 확대 등의 시급한 인류 문명사적인 보편 과제는 소속 정당의 권력 쟁취와 유지라는 작은 이익 때문에 늘 무시되고 있다.

> 인류 정신문화 위기의 시대
> 양극화된 사회 바로 세우려면
> 중도연기법 세계관 · 참선으로
> 내 안에 지혜 · 평화 밝혀내야

사회 정치인들의 양극화는 이분법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다. 정치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편을 가르고 자신을 지지하는 편은 옳고 반대하는 편은 악이고 적이라 죽도록 저주하고 있다. 이런 두 극단의 사회 정치 흐름에서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 문제는 뒤로 미루기 일쑤다.

산업 문명과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은 서양의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산물이다. 창조주 절대 신이 있다는 믿음과 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으로 나눠서 세상을 보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선과 악, 물질과 정신, 좌와 우, 노와 사라는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낳는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낳아 20세기에 1, 2차 세계대전으로 2천5백만 명이 죽는 인류의 재앙적인 참사를 가져왔다. 지금도 중동을 비롯한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사이에는 갈등과 전쟁이 멈출 날이 없다.

이러한 서양의 이분법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위기에 처한 인류의 산업 문명을 창조하였는데, 과연 지금 위기에 처한 인류 문명을 이분법의 세계관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서양의 뜻있는 지식인들은 신 중심 또는 이분법의 가치관을 버리고 동양의 일원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주목하고 있다. 유대인으로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평해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조차 '불교는 우주의 종교' 라 보았고, 아놀드 토인비(1889~1975)와 같은 역사학자는 '20세기에 최대의 사건은 서양에 불교가 전해진 것이다' 고 평가하였다.

지금 서양에서 큰 붐을 이루고 있는 불교와 명상에 대한 관심도 이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문명의 대안 불교의 연기 세계관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에 불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왜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아놀드 토인비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불교에 주목한 것일까?

불교는 우주 만물이 연기(緣起)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 우주 만물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서 모이고 흩어질 뿐이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원자 - 양성자 · 중성사 - 힉스로도 연기설은 입증이 되고 있다. 불교의 연기설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우주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니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다. 이러한 연기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볼 때 나와 자연은 한 몸이요, 분리될 수 없으니 자연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바른 가치관이 설 수 있다.

이 연기의 세계관으로 현실 사회 정치를 본다면, 진보와 보수, 노와 사 같은 두 극단에 집착하여 편을 가르고 상대를 미워하고 없애려는 생각은 편견이고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노와 사가 입장이 다르더라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연기 세계관이야말로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 문명의 위기, 사회 정치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안의 세계관, 가치관이라 하겠다.

한국 간화선의 가치

부처님이 깨친 연기 세계관은 사방으로 전해져 12세기에 이르러 중국 송나라대에 대혜(1089~1163) 선사가 화두 참선법인 간화선을 창안했다. 이것은 불교 역사에서 하나의 혁명이다. 당시까지 불교를 공부하던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을 열심히 보면서 세세생생 수행해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혜 선사는 달마대사가 전하고 육조 조계혜능대사가 제창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니 중생이라는 착각만 깨어나면 바로 부처라는 돈오선(頓悟禪)을 받아들이면서, 깨치는 방법에서 화두(話頭)라는 특출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일체 중생과 만물, 자연이 연기로 존재하니 그대로 본래 완전하다. 이것을 禪에서는 본래부처라 한다. 중생이 본래부처인데 중생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니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연기 세계관으로 보면 중생과 부처가 본래 차별이 없는 하나다. 그러니 중생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에서 깨어나 지혜를 밝히고 행복하게 살려면 '중생과 부처' 라는 이분법적인 가치관과 일체의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이 망상을 없애는데 바로 화두가 특효약이다.

간화선에서 화두는 일체의 망상을 없애어 지혜를 밝히는 탁월한 수행법이다. 특히 나와 너, 선과 악, 진보와 보수, 심지어 중생과 부처라는 잘못된 이분법의 가치관을 버리고 본래 완전한 연기를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화두 참선이다.

현대 문명이 이분법으로 양극화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를 바로 세우려면 중도연기법의 세계관과 화두 참선으로 본래 다 갖추고 있는 내 안에 지혜와 평화를 밝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말이나 문자, 사유 분별에서만 멈추지 말고 화두를 통해서 연기법을 바로 체험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인류 문명의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⑬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 한줄 요약
명부전에 배치한 조각상 군상을 일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로 통칭해서 부른다. 명부계의 조각상은 나무로도, 흙으로도, 돌로도 만든다.



고색창연한 색채·문양으로 완성한 지장시왕〈十王〉


화순 쌍봉사 지장전 시왕상 일괄. 향좌측부터 제10, 제8, 제6, 제4, 제2. 제1, 제3, 제5, 제7, 제9대왕.


쌍봉사 지장전 지장보살 삼존상. 향좌측부터 무독귀왕-지장보살-도명존자.


향좌측부터 인왕(1)-귀왕(2)-판관(2)-사자(1)-인왕(1).

전국 10여 곳의 지장삼존 시왕상

어둠은 빛의 부재이고, 밝음은 어둠의 부재다. 지옥이라 부르는 어둠의 세계가 있다. '지옥'은 말 그대로 '땅 속 감옥'이다. 어둠 속에도 욕망과 물질이 남아있는 한 삶의 원리는 작동한다.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관청이 있고, 빛을 던지려는 자비의 힘도 동시에 상주한다. 어두운 세계의 관청이 '명부(冥府)'이다. '명'은 어둠이고, '부'는 관청이다. 명부에 중생 저마다의 죄업에 상응하는 10명의 대왕이 상주한다. 심판대에 세우고 죄업을 판가름하는 판관과 사자 등의 관료 체제도 갖춘다. 그 곳 지옥에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갸륵한 대원을 세운 지장보살께서 어김없이 드나드신다. 한 손에 든 청정한 보주로 어리석은 어둠의 세계에 빛을 던지신다. 명부의 세계에 중생이 저지른 낱낱의 죄업을 벌하는 열 분의 대왕 '시왕(十王)'이 있고, 어둠에 광명을 놓는 '지장보살'도 발자국을 남기신다. 명부전에 지장전과 시왕전이 공존하고, 때론 혼재한다. 명부전의 풍경은 필연적으로 그로테스크하다. 삶 너머 어둠의 세계를 펼쳐 놓았다. 현실의 누구도 가지 않았지만 미래의 누구도 가야하는 세계다. 명부전엔 지옥 명부계를 주관하는 중심역량의 면면들이 결집해 있다. 평면미술이 아닌 입체조각의 집합으로 펼쳐진다. 입체의 집합성이 주는 감각은 직관만큼이나 뚜렷하고 직접적이다. 공간엔 종교적 엄숙성, 내밀함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마저 자아낸다. 조각에도 명부계의 집합성이 주는 묵직함과 엄숙함의 분위기가 배어있다. '명부전'은 지상에 구현한 명부세계의 불교건축이다. 지장전, 시왕전, 업경전 등 또 다른 이름의 편액을 달기도 한다. 거의 모든 전통사찰에서 빠짐없이 볼 수 있다. 명부전은 통상 중심 법당의 향우측에 배치한다. 명부전에 배치한 조각상군상을 일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로 통칭해서 부른다. 명부계의 조각상은 나무로도, 흙으로도, 돌로도 만든다.

보물로 지정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의 사례는 전국에 걸쳐 10여 곳에 이른다. △목포 달성사 명부전(1565년, 19구, 수조각승 향엄스님) △여수 흥국사 무사전(1648년, 21구, 수화승 인균스님) △진주 청곡사 업경전(1657년, 21구, 수조각승 인영스님) △화순 쌍봉사 지장전(1667년, 21구, 수조각승 운혜스님) △강화 전등사 명부전(1636년, 31구, 수조각승 수연스님) △서울 화계사 명부전(1649년, 25구, 수조각승 영철) △남원 선원사 명부전(1610년과 1646년, 25구, 수조각승 원오와 인관스님) △고창 문수사 명부전(1654년, 11구, 수조각승 상유스님)) △광주 덕림사 명부전(1680년, 26구, 수조각승 색난스님) △김해 은하사 명부전(1687년, 21구, 수조각승 색난스님) △창녕 관룡사 명부전(1652년, 17구, 수조각승 응혜스님) 등이다. 이 중 남원 선원사 명부전의 경우 지장삼존상은 나무로 만든 목조이고, 시왕상은 흙으로 빚은 소조상이다. 제작 시기도 1610년과 1646년 두 차례에 걸쳐 제작하여 인상적이다.

명부전 존상 구성은 하나의 규범처럼 정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장보살삼존상(3)과 십대왕(10), 귀왕(2), 판관(2), 사자(2), 인왕(2), 동자 등으로 한결같은 보편성을 보여준다. 인물구성과 조형 개체수가 통일적이다. 동자상을 빼면 명부전 조형구성은 21명으로 표준화된 경향이 뚜렷하다. 동자상의 제작 수에 따라 전체 조형 개체수가 들쑥날쑥하는 차이를 가진다. 조각의 구성과 조형원리는 대동소이하다. 그 중에서도 화순 쌍봉사 조각상들이 특별한 시선을 끈다. 무엇보다 시왕상 등의 옷에 베푼 문양과 채색에서 수준 높은 예술역량이 돋보인다.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170cm를 오르내리는 등신불 크기의 조각도 시원하다. 시왕상 조형에 베푼 풍부한 장식성, 섬세한 평면회화의 문양장식, 고색창연한 고전의 색채 등 두루 수작의 면모를 지녔다.

수조각승 운혜 등 11명 화원 참여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은 지장전에 봉안돼 있다. 지장전은 사역의 동쪽에 뚝 떨어져 있던 오백전 건물을 1978년 현재의 자리에 옮겨 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장전에는 현재 20구의 조각상이 배치돼 있다. 지장삼존상과 시왕상의 배면에는 복장유물 납입의 흔적이 뚜렷하지만 남아있는 내부 복장물은 거의 없다. 1996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지장전 존상들에 대한 복장조사를 했다. 대부분의 존상들이 이미 도난당한 상태였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장보살상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었고, 제3 송제대왕상 등 몇몇 시왕상에서도 후령통 등 복장유물 일부가 수습되었다. 발원문에 의하면 지장전 존상 조각 불사에는 수조각승 운혜스님을 비롯하여 인성, 도일, 경림 등 11명의 화원이 참여했다. 쇠못 등 목조각 이음새에 필요한 쇠 소모품을 공급하는 야장(冶匠)은 송인철부부가 맡았다. 운혜 스님은 17세기 중반 약 40여 년간 해남, 강진, 순천 등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불사에 참여한 조각승으로 알려진다. 조각승 운혜는 17세기 전반에 조각활동이 두드러졌던 수연 스님의 계보에 속한다. 수연-영철-운혜-경림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중심에 위치한다. 조형이 크고 시원하며 중량감을 갖게 하는 조형 특성을 가진다. 쌍봉사 지장삼존 시왕상에서도 그러한 조각 특성이 드러난다. 장방형 한지에 기록한 발원문에는 아쉽게도 명부전 존상 조성연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쌍봉사 사적기〉에 1667년(현종 8년, 정미년)에 지장시왕상을 제작했다는 확실한 제작연대 기록이 남아있다. 〈쌍봉사 사적기〉에는 1667년 주지 선익화상이 명부전 지장시왕상을 조성하면서 시왕상 조성 목재는 인도에서, 채색 안료는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이전 1637년에는 주지 수인 스님이 명부전을 세우고 지장시왕도를 제작, 봉안하였는데, 시왕상 존상은 그 후속 불사로 추정한다. 1667년이라는 제작연대를 확인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유사한 지장보살상, 이를테면 해남 대흥사와 미황사, 강진 백련사, 순천 동화사와 정혜사 등의 지장보살상 조각의 편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기년작으로서 위치하게 됐다.

> "1667년 운혜 스님 주도로 제작
> 해남, 순천 등 지장보살 기년작
> 170cm에 이르는 쾌적한 조형미
> 차분하고 고색창연 중간색 색조"

지장보살삼존, 시왕상 등 23구 조성

지장보살상에서 수습한 발원문에 의하면 명부전에 조성한 존상은 모두 23구다. 발원문은 〈쌍봉사 신조성 지장보살 좌보처도명존자 우보처무독왕 시왕조성 안우복원(雙峯寺新造成地藏菩薩左補處道明尊者右補處無毒王十王造成安于伏願)〉의 긴 이름으로 시작한다. 발원문 속에 23구의 존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시주자를 밝혀뒀다. 발원문에 기록한 존상 존명은 다음과 같다.

1)지장보살 삼존(3): 무독귀왕-지장보살-도명존자

2)시왕(10): 제1 진광대왕, 제2 초강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관대왕, 제5 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제10 오도전륜대왕

3)권속(8): 판관(2), 귀왕(2), 사자(2), 동자(2)

4)인왕(2): 아금강역사와 훔금강역사 (발원문에선 '좌우장군左右將軍'으로 표기)

권속의 사자, 동자도 다른 권속과 마찬가지로 2구씩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장전에는 20구만 볼 수 있다. 사자 1구와 동자상 2구는 없다. 최근까지 한 구가 있던 동자상마저 행방이 묘연하다. 존상의 크기는 지장보살좌상 106cm, 도명존자 입상 140cm, 무독귀왕 입상 145cm, 시왕 평균 170cm, 판관 94cm, 111cm, 귀왕 119cm, 동자 68cm, 인왕 203cm 크기다. 다른 사찰 명부전 존상들의 아담한 크기에 비해 시왕과 인왕의 조각상을 두드러지게 크게 조각하여 무게감을 갖췄다.

지장전의 존상들은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장보살상은 좌상이고 시왕들은 용과 봉황으로 장식한 의자에 앉아 있는 의좌상(倚坐像), 나머지 존상들은 모두 서있는 입상이다. 지장보살은 녹색 민머리다. 지옥중생을 모두 구제하려는 결연한 서원의 뜻이 느껴진다. 신체는 당당하고 힘이 있으며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가 묻어난다. 육환장이나 보주의 통상적인 지물 대신 아미타불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이은 하품중생인이고, 손바닥에는 조각승 고유의 낙관처럼 井자형 손금을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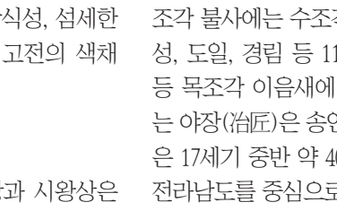
지장보살의 양 옆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시립해 있다. 두 손을 합장한 모습으로 좌협시로 시립한 도명존자는 분조가사를 입었다. 분조가사는 천 조각을 깁은 옷이다. 머리도 녹색 민머리다. 영락없는 지장보살의 차림 그대로다. 우협시 무독귀왕은 왕의 관을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가리개로 덮은 공손한 자세를 취했다. 쌍봉사 지장전 조형에서 돋보이는 수작은 왕관을 쓴 열 분의 시왕 조각이다. 시왕들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홀수 1,3,5,7,9번 대왕들은 향우측인 동쪽에, 짝수 2,4,6,8,10번 대왕들은 향좌측인 서쪽에 배치했다. 현재는 10번 대왕을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향우측 9번 대왕 곁에 배열하였지만 큰 틀의 배치원리는 유지했다. 다른 명부전 시왕상에 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이 단연 뛰어나다. 첫째, 평균 170cm에 이르는 쾌적한 조형미. 둘째, 차분한 중간색 색조의 고색창연함. 셋째, 의자, 의상, 지물 등에 부착하거나 새긴 다채로운 장엄의 장식미. 넷째, 옷자락에 베푼 섬세한 문양의 아름다움 등이다. 특히 어깨와 무릎 부위, 요대, 길게 발목까지 늘어트린 옷고름 등에 새긴 새싹 넝쿨문과 같은 다채로운 길상과 용, 봉황, 사자 등 서수의 문양들이 눈길을 끈다. 신비로운 길상의 문양들은 대왕의 조형에 위신력과 권위, 거룩함을 부여한다. 문양마다 지극정성이 배어있다. 여러 부분을 따로 조각하여 쇠못, 거멀쇠 등으로 연결해서 완성한 접목조기법의 조형은 표면 장엄작업이 대단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어느 한 곳 빠트리지 않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정성껏 문양을 새기고 채색했다. 조각과 색채, 문양의 조화로움으로 완성한 명부전 시왕의 고풍스런 걸작으로 손색이 없다. 걸작의 위상에서 다른 사찰들의 시왕상 제작에 모본 역할을 하는 당위가 나온다.

〈사진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80만원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80만원

불교인문학살롱 ⑬ 〈유마힐 소설경〉을 만나다



▶**성민선 명예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톨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까지 성심여대와 카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한국산문작가협회 이사이며 카톨릭대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수필집 〈징검다리꽃〉(2018), 〈섬세한 보릿가루처럼〉(2020) 등이 있다.

팬데믹 고통 극복시킨 유마힐 '不二법문'

지난 봄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이 직접 번역 · 출간한 〈유마경〉(효림출판사, 2021)을 보내줘 읽게 됐다. 4년여의 긴 기간 동안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때 노후의 생사문제에 대해 부처님께서 시의에 맞게 과외 공부까지 시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기쁘게 유마거사를 만났다.

〈유마경〉은 〈유마힐소설경〉이라고도 불린다. 부처님과 같은 시대에 북인도의 상업도시 바이샬리(비야리 성)에 살던 재가불자 유마힐 장자가 설법주이다. 유마힐(維摩詰)은 산스크리트어 'Vimalakirti'의 한자 음역으로 '깨끗한 이름'(淨名) 또는 '때 묻지 않은 이름'(無垢稱)을 뜻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교했으며, 숙세의 불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 버금가는 위신력을 구사하며 대승(大乘) 그 자체인 대보살로 그려진다.

〈유마경〉은 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재미있는 희곡 무대처럼 구성돼 있다. 각 장면마다 끝 가는데 모를 문학적 상상력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그중에서도 제2 '방편품'과 제5 '문수사리문질품' 그리고 제9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은 절경이다.

유마 거사는 칭병하고 자리에 누웠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32명의 고명한 제자들에게 거사의 병문안을 부탁하셨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느 한 때 유마 거사로부터 그들의 소승적 태도를 지적받았던 경험 때문이었다. 유마 거사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부촉에 응한 문수보살의 문질을 받으며 두 철인의 유명한 대론을 펼친다.

문수보살이 병이 생긴 원인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지, 불이법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묻고 거사가 대답하는 형식이다.

"어리석음을 좇아 애착을 갖게 되어 나의 병이 생겼나니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든 것이요, 만약 모든 중생이 병들지 않으면 곧 나의 병이 사라질 것이니,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생사에 드는 것이요, 생사가 있으면 곧 병이 있거니와, 만약 중생이 병을 여의면 곧 보살도 병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병이 생겼냐고 물었는데 보살의 병은 대비심(大悲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병은 나라고 하는 집착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므로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 한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몸은 재난 덩어리이며 늙어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몸은 저 언덕 위의 마른 우물과 같고…, 오음과 십팔계와 십이입이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이 몸은 독사 같고 원수 같고 도둑 같고 텅 빈 마을과 같습니다."

"근심덩어리인 이 몸을 싫어해야 할 것이며 좋아해야 할 것은 불신(佛身), 곧 법신(法身)이며, 법신은 무량한 청정 법으로부터 생겨나니 일체 중생이 여래의 몸을 얻고 병을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야 합니다."

〈유마경〉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제9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은 32명의 보살들이, 상대적인 두 가지 사항이 결코 둘이 아님을 깨달아 해탈의 세계로 들어감을 설하는 장면이다. 유마 거사가 보살들에게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생각을 말하게 하니 보살들이 차례로 '서로 다른 둘이면서 전체로는 같은 하나'인 불이법문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32번째의 불이법문에 든 다음, 거사에게 물었다.

"내 생각으로는 일체 법에 대해 말이 없고 설할 것이 없고 보여줄 것이 없고 알 것이 없나니, 모든 문답을 떠나는 것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감입니다. 우리들이 제각기 설하였으니 어진이여 설하소서. 어떻게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갑니까?"

코로나19 겪으며 읽게 된 〈유마경〉
팬데믹 인한 가족 불화 해법 전해줘
병에 대한 유마 · 문수 대담 '압권'
불이법문, 연기 · 대자비심 일깨워

그러자 유마거사는 침묵할 뿐 말이 없었다〔良久, 默然無言〕. 문수보살이 찬탄해 말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문자와 말과 설명, 그 모두가 없는 것이 참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감입니다."

이 대화를 보고 듣고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의 보살들이 다 불이법문에 들어 무생법인(無生法忍, 남이 없는 법의 이치를 증득하는 것, 곧 공이요, 불생불멸임을 철저히 깨달아 마음의 평화로움을 얻은 경지)을 얻었다고 경전은 쓰고 있다.

〈유마경〉은 보살이든 중생이든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는 관념을 떠나서 보리심 즉 보살도로 수행할 것을 가르친다. 보리심 수행이란, 곧 우리 몸이 공(空)하다는 이해, 영원한 수명을 가진 존재는 없다는 지혜를 닦는 수행이며 지혜가 있을 때 몸, 병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므로 "이 병도 곧 사라지겠구나" 하는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유마 거사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가르침은 전염병에 대하여, 지병에 대하여, 막연히 무섭고 불안하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준다. 우리 집의 경우 팬데믹이 길어지는 동안 '편리'라는 이름으로 맘껏 외부에서 주문해서 배달해 먹던 짜고 매운 음식



중국 둔황 석굴 벽화에 그려진 유마 거사. 당나라 시기에 조성됐다.

또는 간편한 패스트푸드 때문인지 건강검진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식이조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 부부가 함께 확진자가 되기도 했다. 둘 다 가볍게 지나 간 것이 다행이었다. 그때 나는 〈유마경〉으로 면역을 기른 때가 되어서 몸과 병에 대해 집착하지 않아도 좋았기에 걱정 대신 병을 낫게 하거나 더 나쁘게 하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노력에 주의를 기울였다. 병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고 마음이 평온했다. 나아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 뿐 아니라 '우리들이 아닌 모든 다른 존재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대자비심으로 바라보게 됐다.

유마 거사는 〈금강경〉의 설법을 생활 속으로 불러내주며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남이 아프면 남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가 아프면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는 연기적인 아픔의 관계'와 '대비심'으로 아픔의 관계를 풀어야 함을 깨우쳐준다. 내가 아플 때 남의 아픔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으며 아픈 사람을 돕는 대비심을 내는 것이 보살행의 좋은 시작이라는 가르침을 남겨준 것 같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起心)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었다.

〈유마경〉이 현세의 난제 중 난제인 불이(不二)를 실행하고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최상의 방법으로 가르쳐준 '침묵'은 현대사회의 온갖 병폐와 갈등을 원초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지혜로운 묘약이었다. 입을 열면 이미 그르치게(開口卽錯)된다는 선(禪)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 속에서 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관념이나 신념 자체가 올바른 지견에서 나온 것이 아닐진대 말로써 벌어지는 사단은 알 수 없는 번뇌 망상을 불러일으키며 그 후과(後果)는 아무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깜깜이 천지일 것이다.

팬데믹 기간 중 유마 거사의 침묵 설법은 내 가정의 평화를 지켜준 천상의 구원과 같았다.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집안에서 소심하게 웅크리고 지낼 때 제일 힘들었던 일은 남편과 자주 부딪혔던 일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무응답이나 침묵으로 대응하는 남편의 속마음을 알 길 없어 답답했던 적이 많았다. 이유를 모른 채 화를 내거나 찡그린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될 때는 내 안에서 화와 원망이 솟구치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남편에게 많은 말을 쏟아내곤 했다. 왜 평생 애쓰고 산 아내를 무시해, 늙고 힘없는 아내의 말을 왜 안 들어줘, 친절하지 않다, 자비가 없다, 사랑을 모른다, 기울어진 사람이다… 등등,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심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서로 원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 하나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은 빗나갔다. 이러다가는 평생의 관계가 무너지겠다 싶은 위기감을 느꼈고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싶던 때에 〈유마경〉을 만났다.

부처님의 사자로 유머거사가 나의 전담 상담자가 되어 주면서 내 마음속 병의 원인을 내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대비심을 내고 대비심을 냄으로써 더 지혜로워지고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나와 너 우리는 하나다"라는 불이(不二)를 알아차리면 사람들 사이에 쓸데없는 갈등이 저절로 소멸한다는 가르침이었다. 그 해법을 들으니 나의 지혜와 자비심이 얼마나 부족했던 것인지, 남편의 침묵에 담긴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과 자기주장으로 상대편을 통제하려고 했던 허황된 욕심을 자성하고 참회할 수 있었다.

노자(老子)는 무위의 철학을 말하면서 성인(聖人)은 일을 삼지 않는 무사(無事)로 임하며 '말하지 않음의 가르침을 행한다'(行不言之敎)고 하였는데, 남편이 내게 일일이 응대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침묵이나 함구, 그리고 간혹 화난 얼굴로 나를 대해준 것이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 나를 곤경에 처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오히려 친절한 처사였음인데 말이다.

나는 어느덧 남편을 마음으로 보살님으로 부르게 되었다. 팬데믹 기간 내내 집안 쓰레기 치우는 것은 물론 부엌살림을 도와주고 글을 쓴다고 책상 앞에 붙박이처럼 앉아 있는 나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이 작동되지 않을 때 손을 봐주는 것도 그였다. 감사한 줄은 모르고 나는 더, 더 하며 내 욕심을 부린 꼴이었다.

1~2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진 〈유마경〉이 '불교 대승 운동'의 선언서와 다름없는 중요한 경전이며 재가자인 유마힐 장자가 대승운동을 선도하였다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요즘말로 유마힐 거사가 사회참여 불교, 재가자 불교운동의 개막을 연 것이다. 승속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이 경전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듯이 재가자들에게 행복한 인생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다.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집착 떠난 자리가 '열반'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㉕ 윤회와 열반

〈원문〉 아난이 부처님께 절을 하고 사뢰었다. "어찌하여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것과 열반을 누리게 하는 것이 다 같이 육근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십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셨다. "근(根)과 진(塵)이 근원이 같고, 속박과 해탈이 둘이 없으며, 식(識)의 성(性)이 허망하여 마치 허공꽃(空華)과 같느니라. 아난아, 진(塵)으로 말미암아 알음알이(知)를 발하고, 근(根)을 인하여 상(相)이 있으니, 상(相)과 견(見)이 자체 성품이 없어서 서로 기대있는 갈대와 같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지견(知見)에 알음알이(知)를 세우면 곧 무명의 근본이요, 지견에 견이 없으면 이것이 곧 열반의 샘이 없는 진실하고 깨끗함이니 어찌 이 가운데 다른 것을 용납하겠느냐?"

〈강해〉 중생의 생사와 부처의 열반이 모두 육근(六根)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난이 의심이 생겨 물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이 먼저 근(根)과 진(塵)이 근원이 같다고 대답한다. 이는 육근이나 육진이 모두 여래장 묘진성인 본각(本覺)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속박과 해탈이 둘이 없다'는 것은 중생은 근(根)과 진(塵)에 속박이 되고 부처는 해탈이 되므로 속박되는 근진이나 해탈하는 근진이 같다는 것이다. 또 근과 진에서 생기는 식(識)이 그 성품이 허망하다 하였다. 보통 육근(六根)과 육진(六塵) 육식(六識)을 합하여 십팔계(十八界)라 하는데 이 십팔계 범주 안에서 중생은 생사윤회를 거듭하고 부처는 생사를 떠나 열반을 누린다는 것이다. 집착하니까 생사가 있게 되고 집착을 떠나면 열반을 누리게 된다는 것. 중생은 근을 통해 진을 찾아서 알음알이 곧 분별을 내게 된다. 이것이 식(識)이니까 식은 곧 근과 진이 작용을 일으켜 식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식심은 허망하여 허공의 꽃과 같다 하였다. 이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허공꽃은 눈이 피로해지거나 눈병이 났을 때 보이는 것이고 눈병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심(識心)을 일으키는 상태가 눈병이 난 상태라는 말이다.

'진(塵)을 말미암아 지(知)를 발한다'는 말은 지(知)는 의근(意根)의 작용이지만 육근의 작용을 다 가리키는 말이다. 눈은 명암의 진(塵)이 있기 때문에 보고, 귀는 동정(動靜)의 진(塵)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다. 지(知)는 결국 육진을 말미암아 육근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근(根)을 인하여 상(相)이 생긴다는 것'은 근은 육근이고 상은 육진이다. 이 말은 진 때문에 근이 생기고 근 때문에 진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근과 진이 서로 독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비유하여 서로 기대있는 갈대와 같다고 하였다. 교로(交蘆)란 갈대가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을 말한다. 연기법의 이치를 설명할 때도 곧잘 이 비유를 든다. 교로라는 갈대는 두 줄기가 서로 의지해 자란다고 한다. 연기법을 정의한 말인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는 말처럼 근과 진이 서로 짝하여 있는 것이란 말이다. 근(根)·진(塵)이 짝할 때 식(識)이 생기므로 십팔계 안에서 서로 교섭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처럼 말한 '지견(知見)에 지(知)를 세우면 무명(無明)의 근본'이란 말은 근·진이 상호 작용하여 식심(識心)이 일어나면 본래의 각(覺)을 등지게 된다는 말이다. 지(知)는 의근(意根)의 작용이고 견(見)은 안근(眼根)의 작용이지만 육근을 가지고 육진을 분별하여 육식이 일어나게 되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지(知)를 세운다는 것'은 분별하여 아는 알음알이를 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생각에 묶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만들고 나아가 생사에 유전(流轉)하는 근본이 되므로 무명의 근본이라 하였다.

'지견에 견이 없다'는 것은 근이 진을 대하여도 식심이 일어나 집착을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경지이다. 무심(無心) 혹은 무위심(無爲心)이 되어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므로 아집도 생기지 않고 법집도 생기지 않는 무집착의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열반을 얻어 번뇌에 쫓기지 않고 청정하게 스스로 거하게 된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생멸문·진여문서 본 육바라밀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㉕ 육바라밀

〈원문〉"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까닭에 나로 하여금 6바라밀다와 자비희사와 32거룩한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과 자줏빛 황금색과 열 가지 힘과 네 가지 두려움 없음과 네 가지 붙들어 주는 법과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묘법연화경 제12품 제바달다품 중)

〈강의〉 바라밀은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을 말한다. 생멸수행의 6바라밀이 있고 진여수행의 6바라밀이 있다. 6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바라밀은 생멸심을 제도하기 위한 수행이다. 선정과 정진바라밀은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기 위한 수행이다. 지혜바라밀은 대지혜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이다. 지혜바라밀을 통해 성취하는 대지혜는 여섯 가지가 있다. 일체지, 일체종지, 자연지, 무사지, 불지, 여래지가 그것이다. 이 중 일체지는 생멸수행을 통해 성취된다. 나머지 다섯 가지 지혜는 진여수행을 통해 성취된다. 생멸 수행의 6바라밀은 중심과 각성, 본성과 밝은성품, 심과 식의 바탕, 본성의 간극과 무념·무심이 방편으로 활용된다. 선정의 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편이 쓰인다. 초선정에서 3선정까지는 중심과 유위각이 방편으로 쓰인다. 4선정부터는 본성과 일시적 무위각, 밝은성품이 더해진다. 5선정부터는 본성과 심의 바탕, 일시적 무위각과 밝은성품이 더해진다. 6선정부터는 일시적 무위각과 식의 바탕, 무념, 무심, 밝은성품이 더해진다. 7선정부터는 본각과 본성의 간극이 활용된다. 8선정부터는 본각과 간극, 무념, 무심, 밝은성품이 함께 활용된다. 진여수행의 6바라밀은 구경각과 진여심이 활용된다. 과위의 성취에 따라서 제도의 방법과 대상이 서로 달라진다. '바라밀'이란 건너고, 극복한다는 뜻이다. 생멸심을 건너고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극복하고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것이 바라밀이다. 생멸 수행과 진여 수행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무명의 원인을 극복하고 대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바라밀을 행하는 목적이다. 보시바라밀,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다. 생멸수행을 놓고서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자비희사로서 행해지는 보시이다. 두 번째는 본성으로 행해지는 보시이다. 세 번째는 간극에 머물러서 행해지는 보시이다. 보시를 행하려면 먼저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이기심이란 의식·감정·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다. 이기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감정·의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지켜볼 줄 아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 지켜보는 마음으로 의식·감정·의지를 단속하게 되면 이기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시 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이다. 자비희사로써 보시를 행한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보시하고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면 마음으로 보시한다. 편안하고 착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이때의 보시이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보시이다. 본성을 활용해서 보시를 행한다. 두 가지 경우의 본성 보시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두 번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상대를 통해서 본성으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 본성에 머물러서 밝은성품을 생성해낸다. 그 밝은성품으로 상대를 감싸준다. 본성을 봄으로써 갖추어지는 공덕을 상대에게 회향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본성으로 비춰준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경계로 삼는다. 경계는 한 점이 되고 본성은 바탕이 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㉕ 말과 뜻이 하나

부처님 가르침, 있는 그대로 듣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의도를 숨겨두는 말의 뜻은 없다. 비밀리에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어떤 가르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 가르침 그대로 새김하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헤매지 않고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찾다가 어떤 특정한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것처럼 느낀다. 오래전에는 우리말로 된 경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부처님의 원음을 한글로 쉽게 번역한 〈니까야〉가 있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아주 평범하여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면 충분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팔리어(Pali)를 사용하여 가르침을 펼쳤다. 누구나 듣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니 숨은 뜻이 있을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여러 뜻으로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한다.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가르침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여 지나쳐 버린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어렵다고 말한다. 가르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만 말씀하실 뿐,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나'에 대해 말씀하신다. '물질은 내가 아니다.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그대로다. 이 말씀에 얼마나 빠르게 틈 없이 접근하느냐의 문제이지,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여기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한다면 의식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모양의 이미지는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공간이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그때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때 아는 '나'라는 것은 어떤 기억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다. 부처님은 이때의 이름을 불생불멸이라고 하셨다. 이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며 방편은 등대와 같다.

"여래는 비록 불생불멸, 자성열반, 삼승, 일승, 심, 자성 등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 언설과 이름 그리고 어의에만 매달려 그 구경의 뜻을 마음속으로 증득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을 비방하는 지견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네. 이는 여래가 세운 언어의 본뜻과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또 다른 하나의 망상일 따름이네."

배가 등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가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있으니 등대를 의지하여 가는 것이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등대는 무의미해진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증득하는 순간부터 언어는 그에게 아무 뜻이 없어진다. 이름은 언어로서의 기능이지 그것이 지시하고 만들고 규정하는 특정한 모양이 생겨날 수 없다. 이름이 없으면 그것을 전할 방법이 희박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일한 가르침인 침묵만 할 수도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참다운 가르침의 묘용을 그들은 알 수 없으므로 등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사용함에 부작용은 있겠지만, 부작용 때문에 등대를 버리지 못함이니 등대를 그것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자칫하면 등대를 그것으로 잘못 알아서 언어로 그것을 말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놓친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방편의 말과 모양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도취되기 때문이다. 생겨난 재난은 재난이라 말하지 않고 온다. 거친 재난은 고통이지만 미세한 재난은 달콤하다. 그들이 웃고 박장대소하는 순간 모든 것이 죽어간다. 다만 그 죽어가는 것을 모른다.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전도되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여기에서 바른 답을 얻어야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2호 | 17 | 전면광고

법을 들으면 그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하느니, 그 참뜻에 의거하고 문자에 의거하지 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대보적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2,0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밀양포교원

- 밀양터미널앞 2층 약 60평
- 전세:1천만원, 월세 45만원
- 비품시설 1.500 (절충가능)

010-8519-5657

사 찰 안 내

- 대구 동구 신암동
- 대지 : 80평
- 1층 요사 , 28평, 방6개
- 2층 법당 26평
- 지하공양간 43평, 방4개
- 조용한곳
- 가액 : 15억

010-3501-5230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읍내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27평
- 대지 200백평, 매매 및 전월세
- 매매 : 3억 1천만원 / 전월세 : 2,000만원에 월 40만원

010-9485-9318

토굴 땅 안내

- 괴산 토지 500평, 평당 25만원
- 이면도로 2차선도로적
- 가까이 호수같은 큰 저수지 있음
- 주변 경관이 조용하며 토굴짓기에 좋음

010-4876-1058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7m 정도) / 부처님 사리(협의)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앞 개울이 있습니다. 앞산 능선이 와불로 되어있습니다.
- 매매가 : 2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2807-0509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약 230평 (요사채, 법당, 공양간 등)
- 가액 : 3억(절충가능)

010-9389-745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거리
-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불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사 찰 안 내

- 위치 : 완도군 군외면 당인3길 93
- 총평수 2000평
- 법당 22평, 산신각 6평, 요사체 35평, 25평(두채)
- 가격절충
- 서경보 스님 주석하셨던 사찰

010-5635-9499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대지 155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1층
- 가액: 9억 (절충가능)

010-6760-8320

사 찰 안 내

- 장호원감곡 KTX 10분 거리
- 종교 계획관리 730평, 대지 250평, 요양부지, 요양원 토목공사 완료 1000평, 차고, 목조단청대웅전 50, 산신각 20평, 찜질방, 휴게소, 주방 종각 , 연못 잔디광장, 각종 탑, 진시사리, 12m 해주관음, 양쪽 대형용, 접견실방 5개, 남녀화장실 3, 요사채 4동,
- 보시고 상담 후 결정

1899-0047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4727-6065

산신각 불사 안내

- 소재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룡산
- 사찰 :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기도도량 문성암
- 소개 : 덕룡산은 초의선사 출가도량이며, 백제의 고찰 불회사가있다.
- 시주: 설판시주 5천만원
  동참시주 1,000 만원 (5가족)
  동참시주 500 만원 (10가족)

061-337-0711 (문성암)
010-2354-9908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홍성군 – 시내 5분거리
- 대지 : 160평
- 텃밭 : 100평
- 시설비 : 2000만원
- 울창한 소나무 숲 위치함
- 문중암자 : 연세 12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가능

010-7942-9015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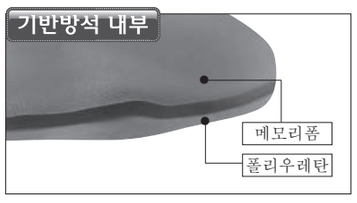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42호 | 18 | 전면광고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보적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련 . 대진합장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성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사주 명리 구성학

- 1대 1 강의! 단기완성!
- 포교당 스님!
- 찾집하실 보살님!
- 대전스님

010-9497-3476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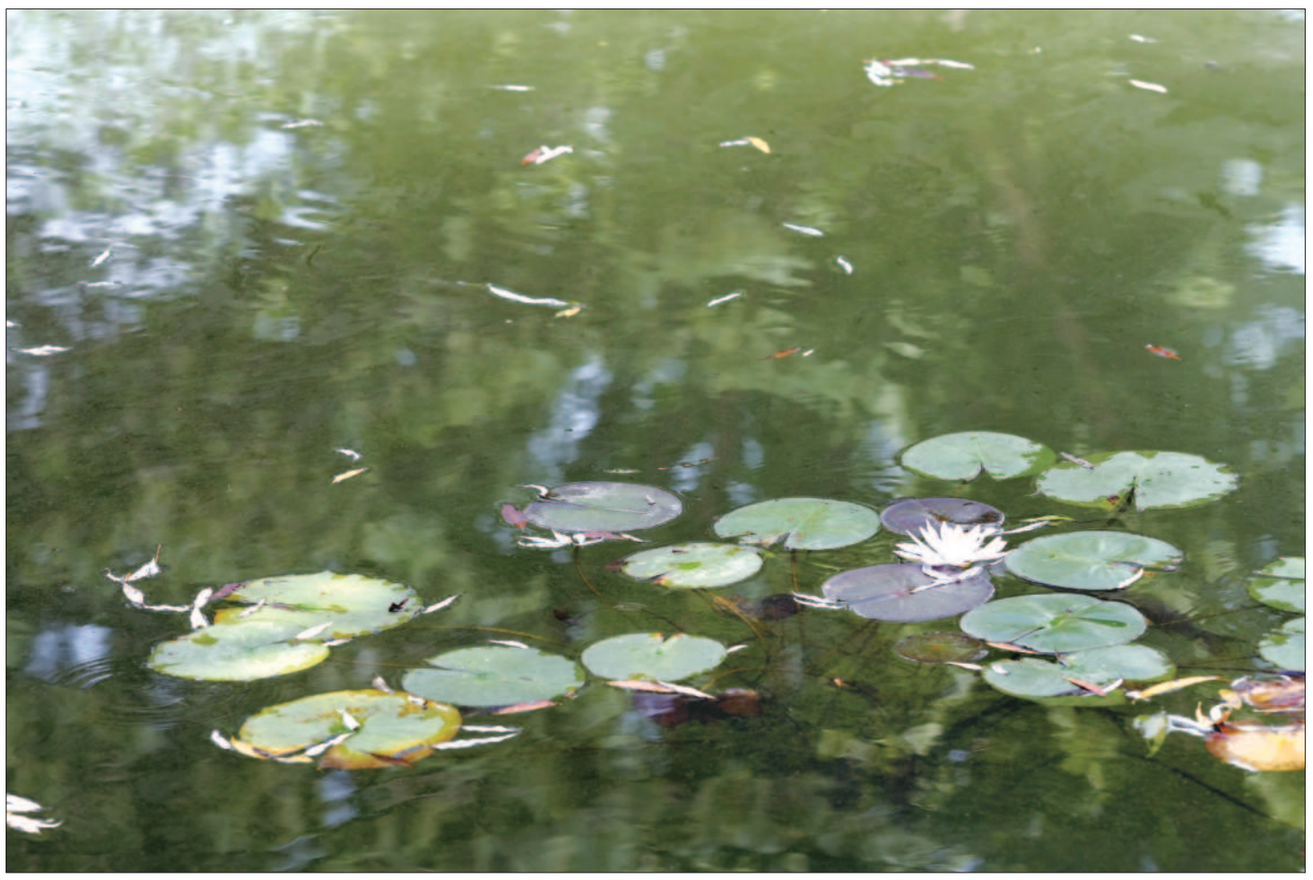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박재완의 포토에세이

마음



마음을 들여다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힘겹다는 핑계로 방치된 '마음',
힘겨운 삶에서 '마음' 은 넘을 수 없는 허들이 되어간다.
다가가는 일보다 밀어내는 일이 더 많았던 오늘
마음은 또 한 번 퇴화되고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생긴 굶가
오늘의 우리를 힘겹게 한다.

길을 걷다 만난 호수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하늘빛이었다가 구름빛이었다가 새들의 눈빛이었다가
달빛 별빛이었다가 바람의 빛깔까지.
우리만 빼고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⑪ 감잎차

폐에 좋고 태양인에 좋은 꽃차
〈肺〉

감을 심으면 고욤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감 줄기를 고욤나무에 접을 붙여야 감이 열린다. 접을 붙여야 감이 열리는 이치는 우리의 인생철학을 담고 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한 번은 육신(肉身)이 나고, 다음은 정신(精神)이 깨어나야 한다' 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모두 사람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사람이 된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주역〉에서는 "낳고 낳은 것을 역(易)이라 이르고"(生生之謂易)라 하여, 진리는 거듭남을 통해 깨우치는 것이라 하였다.

또 대추 조(棗), 밤 율(栗), 배 이(梨), 감 시(柿)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과일이다. 대추는 소음인, 밤은 태음인, 배는 소양인, 감은 태양인에 좋은 것으로, 사상인을 대표하는 과일이라 할 수 있다. 감의 꽃말은 경의, 자애, 소박이며, 다른 이름은 돌감나무, 산감나무, 똘감나무, 과체(果蔕), 시화(柿花)이고, 생약명은 시목(柿木), 시자(柿子), 시체(柿蔕), 시근(柿根), 시엽(柿葉)이다. 중국, 대만, 일본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기도 이남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용부위는 뿌리, 나무껍질, 잎, 꽃, 과실, 성숙한 감꼭지로 모두 약용하고, 과실은 식용하며, 잎은 차로 사용한다.

성분과 약성

감에는 탄닌(tannin), 포도당, 과당, 서당 등이 있고, 감꼭지에는 하이드록시트릭터페닉산(hydroxytriterpenic acid), 우르솔산(ursolic acid), 탄닌(tannin), 포도당, 과당 등이 있다.

감잎에는 플라보노이드(flavonoid), 아스트라갈린(astragalin), 미리시트린(myrici trin), 비타민C, 카로틴(carotene), 환원당(還元糖), 정유, 탄닌, 페놀류(phenol類), 올레아놀릭산, 베툴산 등이 있다.

감잎은 성질이 차고 맛이 쓰다. 감도 성질은 차고 맛은 달다. 감은 기(氣)를 모으고 심폐(心肺)를 윤택하게 하며, 갈증을 멈추게 하고 담을 삭인다. 또 감은 수렴시키고 굳게 하여 이질을 멈추게 한다. 감잎은 고혈압, 천식, 폐기종을 다스린다. 감꼭지는 딸꾹질을 진정시키며, 구토를 멎게 한다.

마음 · 기(氣)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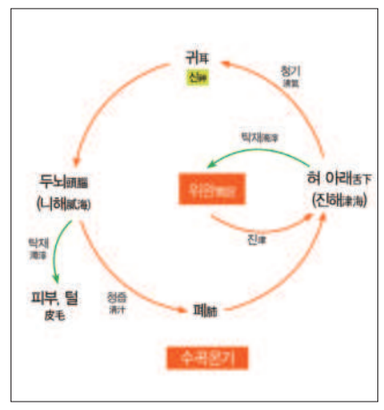
감잎은 폐(肺)에 좋은 태양인의 꽃차이다. 감은 기운을 모으고 수렴하기 때문에 항상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태양인이 한 걸음 물러서서 일을 살펴 고요하게 해준다.

태양인의 신체적 특징은 머리가 크고 하체가 약하다. 또 이마가 넓고 이목구비(耳目鼻口)가 크고 뚜렷하여 인상이 강하다. 소변을 시원하게 보며, 땀 배출이 많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이다. 특히 하체에 힘이 갑자기 풀리는 해역증(解亦證)이나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토하는 열격(噎膈) 혹은 반위(反胃)를 잘 살펴야 한다. 구역질과 구토가 없어야 한다.



감은 폐(肺)의 열을 내리고 윤택하게 하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수곡온기는 위완(胃脘)에서 진(津)이 생성되어 혀 아래의 진해(津海)로 들어가고, 진해의 맑은 기운은 귀로 나아가서 신(神)이 되고, 신(神)이 두뇌로 들어가 니해가 되고, 니해의 맑은 즙을 폐(肺)가 빨아들여서 원기를 보익한다. 니해의 맑은 즙이 폐의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에 감은 두뇌에 있는 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감잎은 고혈압, 천식, 폐기종 등을 다스리는데, 이것도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니해의 맑은 즙이 폐의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에 감잎은 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제다와 음용

감잎은 5~6월에 채취한다. 감잎을 깨끗이 씻어 시들리기를 한다. 시들은 감잎을 1cm 크기로 자른다. 중온에서 덖으며 잘 익혀준 뒤 유념을 한다. 고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완성한다.

감잎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감잎, 감꼭지차와 메밀차를 블렌딩한다. 감잎차 블렌딩은 심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과 담을 삭인다. 또 몸을 서늘하게 하고 해독시켜 염증을 가라앉히며, 대 · 소변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감잎차 1g, 감꼭지차 1개, 메밀차 0.5g에 100℃로 끓인 물 30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감잎은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사람은 많이 마시지 않는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감잎차의 건향은 달콤하고 녹차의 싱그러움이 다가왔다. 우림한 차에서는 구수한 향과 녹차 덖을 때 향이 났다. 시음에서는 녹차의 싱그러움과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이 있다. 마시고 난 후에는 입 안이 떫고, 아린 느낌이 남았다.

다른 시음자는 우림하기 전에는 단내가 났고, 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시음한 차에서는 구수한 향과 맛이 났지만, 이후에 감의 떫은 맛과 혀 양쪽 끝이 아리한 여운이 남았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감잎차의 건향에서는 고추부각 냄새가 났으며, 1차 시음에서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났고, 코가 뻥 뚫리는 듯 시원해졌으며, 트림이 올라오고 눈이 시원해졌다. 2차 시음에서는 다슬기 맛이 났고, 소화가 잘 되고, 코가 시원해졌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감잎차의 건향에서는 구수한 차향이 올라왔다.

시음에서는 앞에 먹은 음식의 여운을 씻어주는 느낌이었다.

다른 시음자는 감잎차의 건향에서는 단내가 났고, 우림한 차에서는 구수한 냄새났다. 시음에서는 텁텁한 맛이 나며, 마신 후에는 아리한 맛도 나고, 입안 깊숙한 곳에서는 화한 느낌도 났다. 잠시 후에 눈이 뻑뻑한 느낌이 들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일일시호일

한쪽다리 겨우 살렸지만
재활까진 막막

시댁 괴롭힘 벗어나 홀로 생계 이어가던 파르바티씨
끊어진 힘줄 스님 · 도반 덕에 수술…빚 1000만원 남아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❻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



▶한줄 요약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를 알아차리고 일치시키는 힘을 갖는 게 바로 매순간 깨어있는 삶이고 수행이다.

깨어있는 습관을 유지하라

나는 매일 제주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떠나려는 이유는 이곳이 부적절한 곳이 되어서다. 제주국제명상센터의 이사장직을 그만둔 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을 계속 사용할 수도 없거니와, 더 이상 나의 역할이 명상센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매주 1회 명상지도사 자격과정을 강의하는 것과 토요일마다 하는 전문상담사 슈퍼비전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일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며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그런데 막상 이곳을 떠나려고 하니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내가 진정 수행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내 주변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의 삶이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순간 깨어있다' 는 것은 '그 순간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을 말한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를 알아차리고 일치시키는 힘을 갖는 게 바로 매순간 깨어있는 삶이고 수행이다. 나 자신의 삶에서 세상의 불필요한 것들이 입력되지 않아야 하고, 입력되더라도 곧 소멸될 수 있는 모습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다. 붓다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제자들에게 거울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 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분으로부터 아무런 칭찬이나 비판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 분이 계실 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함께 하는 길은 우선 그 분을 적당한 위치에 모시는 일이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분께 예불을 하는 것이다. 예불을 하는 순간만이라도 부처님께 주의를 집중한다. 그리고 다음 행위를 할 때라도 주의가 다른 대상으로 가면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와 집중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이와 같은 깨어있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순간 노력한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미루다가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상황이 이전의 상황을 덮어버린다. 아직도 새로운 곳으로 가야할 날짜가 많이 남아있다. 우선 이 순간을 잘 보내고 있어야 다음 그 때가 와도 부처님을 모시는 일을 놓치지 않게 되고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깨어있는 삶은 내가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다음으로 마무리와 함께 처리해야할 일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상지도사 2급과정이다. 당초 지난달 초에 기본과정을 끝내고 9월부터 심화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차기 이사장의 업무 일정에 따라 8월까지 심화과정을 마무리해야 함으로 일정을 수정하였다. 심화과정에 따른 학사일정을 처리해야 하고, 심화과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 일정에 맞춰 제주도를 떠날 준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제주도를 떠날 것을 알리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 갈 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일정도 8월에 끝날 명상 심화과정과 맞추고자 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육지에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일이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시세에 따라 집을 내놓고 파는 일과 사는 일을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집값을 합의해야 하고, 육지도 몇 차례 다녀와야 하는 일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육지 갔을 때 50여 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마치 내가 그 시절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른 세상임을 보면서 설레는 마음도 잠시뿐이었다.

이곳을 마무리 하려니 저곳의 일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떠나야할 이곳 못지않게 가야할 그곳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이곳의 일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곳을 떠올리니 머릿속은 한층 더 복잡했다. 꿈에서도 나타났다. 간밤에는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친구들의 모습이 선연히 떠올랐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하나하나 물었다. 부인은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들은 어떤지, 하는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등 자세히 물으며, 그가 살고 있는 곳의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느긋하게 정담을 나누었다.

심지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친구들도 나타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간밤의 꿈이 너무나 선명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이제는 꿈에서조차 제주를 떠나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사실 요즘은 현재 살고 있는 집 안팎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책은 이미 정리하였고, 그동안 살면서 모아놓은 온갖 장식품들, 나무나 돌, 쇠붙이로 만든 부처님들, 자기나 유리로 만든 다기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념패들의 이름을 지우고 박스에 담았다. 제주와의 인연을 하나 둘 지워가고 있다.

매순간 깨어있는 수행자의 길
항상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존재가 제자들 거울이던 붓다
내려놓음이 아름다운 마무리

그러면서도 꼭꼭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내면 깊숙이 감춘 마음이었다. 아직은 내가 제주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제주에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다. 그들은 내가 제주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고, 지난 번 나의 아픈 경험을 알고 있다.

사실 내 인생을 보면, 서울에서 태어나 6.25 동란을 겪으면서 육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태어난 곳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리움이 남아있어서인지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대학 3학년 편입,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한 꿈을 펼치면서 서울에서 가족들과 어렵게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제주 친구와 인연이 되어 제주대학으로 오게 되었다. 이후 35년간의 인생중년기를 보내고 칠순을 지나 팔순에 가까운 나이가 되니 이제는 제주에서 나의 생을 마무리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렇게 살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누가 알리오. 차기 이사장을 추대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게 이루어질 줄을. 이사장 자격조건의 합의과정이 어렵게 되면서 나에 대한 거부감이 차기 이사장을 추대하는데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 가슴이 싸늘해짐을 느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시간이 흐르고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지만 싸늘해진 가슴은 따뜻해질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서서히 제주를 떠나라는 신호로 다가왔다.

내 마음은 그렇게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내 삶의 외형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듯하였고, 내가 제주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은 수면 아래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만든 작품이었다.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고 했던가? 지난해 말 이사회와 금년 초 총회에서의 경험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고, 나는 더욱 조심스레 살고 있다. 문득 문득 일어나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소한 감정조차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일어나는 순간 제주를 떠나라고 일깨워주었다. 이처럼 나에게 일어난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철저히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더욱 제주에서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 흔적은 하나를 마무리하면 저것이 나타나고 저것을 마무리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났다. 이처럼 기억의 흔적은 흐려지더라도 어느 땐가 나타나서 겪어야 할 것들이었다.

어제는 명상센터의 한 분야인 명상교육원의 책임자와 만났다. 7월에 있을 초청 강사의 특별강연을 계획하고 홍보해야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강연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잡고, 일정에 따라 식사와 간식, 강사료 등 운영비를 책정하고, 이러한 일정이 차기 이사장의 운영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책임자에게도 일체 말하지 않았고, 제주국제명상센터에서의 마지막 일이이라고 생각하니 더 소중하고 귀하게 만났다. 모든 것이 매순간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더 소중하게 여겨졌다. 이럴 때 나는 시간이란 관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낀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순간의 일일뿐 과거로 흘러가고, 또 새로운 현재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니 지금 그 순간을 더욱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게 된 것이다.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내려놓음으로 완성된다고 하였다. 나는 제주를 떠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모은 무수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작업을 해왔다. 모을 때는 대단히 값지고 귀한 것이었으나 버릴 때는 대수롭지 않음을 느끼며 미련 없이 버렸다. 빈 공간이 점점 커졌다.

마무리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왔다. 그런데 점점 '인생을 마무리한다' 는 말이 왠지 적절하지 않음을 느꼈다. 무엇을 마무리한다는 말인가? 마무리라는 말은 일의 끝을 맺는다는 말인데, 일의 끝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흔히 인생을 끝낸다는 말을 한다.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을 말한다. 제주에서의 35년 인생을 돌아보자. 무엇을 버려야 하나?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손 가까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임을 알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면 된다. 그렇다면 위치가 아닌 마음은 어떻게 정리를 하지? 그것은 관계에서의 일이다. 그동안 희로애락을 나누었던 분들과는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 앞에서 마무리할 때 우선이 내 마음임을 알았으니 이제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면 된다. 그동안 나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린다. 이때의 감정을 바라본다. 뭔지 불편한 느낌을 주는 분들이라면 편안한 느낌이 일어날 때까지 바라본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편안한 분들이라면 그대로 바라본다. 떠오르는 분들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다.

이제 제주를 떠날 준비가 되고 있다. 제주에서의 삶의 마무리가 되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마무리는 새로운 기쁨의 순간을 창조하고 있다.

〈前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육조 혜능스님이 법문하신 육조단경의 핵심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42 호 현대불교
2023년 7월 5일(음 5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내 몸이 죽는것도 걸리지 않을때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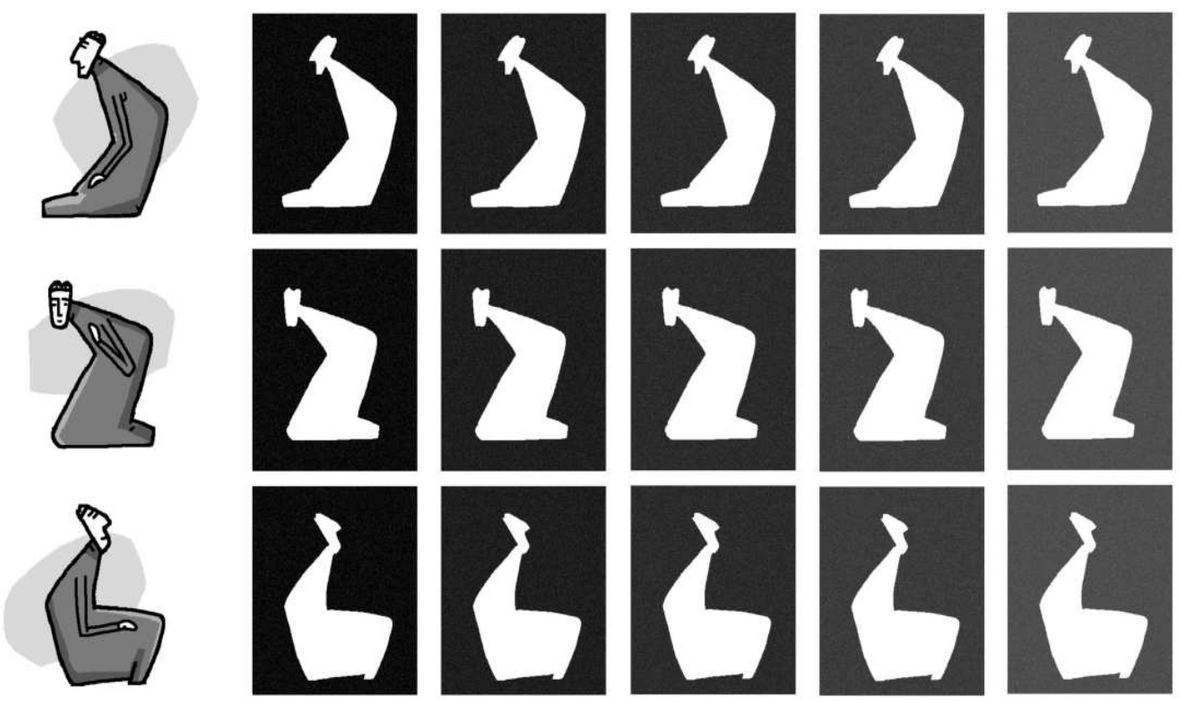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초보적인 마음 다루는 공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한 분만 있다 해도요. 그리고 열 번을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시길 바라고요.

첫째,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 모습이면 누구나가 다 인간이라고 보지만 탈만 인간이지 진짜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다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네 과거의 모든 걸 모르거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 각본대로 너한테 다가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가는 걸 보면 미래에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누구더러 물어보느냐?"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과거에 자기가 한 대로 각본대로 나오는 것이요, 지금 하고 돌아가는 거는 미래의 각본이 되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세밀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돈이 벌리는 것도 안 벌리는 것도 사실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참말 어리석고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사는 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또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각본대로 배역이 주어지는 탤런트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고(苦)'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집멸도 사제법에서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도 붙고 '멸'도 붙고 '도'도 붙고 이런 게 다 붙어요. 크고 작은 게 붙고, 좋고 언짢은 게 붙고, 언짢은 건 끊어 버리고 좋은 걸 붙게 해도 역시 언짢은 게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각본대로 받고 있고 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인간 자체, 생명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아주 기묘한 이치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또 한 번 하고 넘어가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 속에 미생물들이 수없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미생물들이 있기 이전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다닐 때 어떠한 아귀가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저항력을 발휘해서 필사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입니다. 그건 왜냐.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토록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고, 그렇게 침입 못 하게끔 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이끌어 가는, 수십억 마리를 이끌어 가는 대표인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아무렇게나 산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생각을 안 해 줍니다. 일을 하고는 있겠죠. 그러나 '에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구태여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나 똑같죠. '구태여 뭐,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딴 데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라는 게 극히, 두렵다면 두렵고 무섭다면 무섭고 자비하다면 자비하고 너그럽다면 너그러운 겁니다. 한마음의 도리라는 것이 그렇게 너그러운가 하면 그것을 또 한번 뒤집어 본다면 그 체 없는 마음들이 악을 수없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을 수없이 이루어서 그저 인연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닿는 대로 끌어다가 우환을 일으키고 가환을 일으키고 병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체험을 해 본 사람은 그걸 알겠지만 체험을 해 보지 못하고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 팔자야. 왜 내가 이러냐." 하고선 한탄, 하소연만 하지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탄하기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원력이 필요한 거지 한탄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다 보면 암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게 누구 탓이냐 이겁니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자기 업보죠. 그걸 과거의 업보라고 하지만 과거도 현실입니다. 왜? 자기가 현실에 몸을 가지고 나오면서 과거에 자기가 한 짓을 짊어지고 나왔으니 과거가 어딨습니까? 과거가 어딨느냐구요. 그래서 현실에도,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됨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다. 그러니 생사에도 끄달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몸뚱이가 가을 이파리 떨어지듯 헤딱 떨어졌지만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물질도 영원한 거죠.

그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수화풍의 바탕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허망하다 그러지만 바로 그 물질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생명의 영혼도 무효입니다. 아예 무질서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아주 섬세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허망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다고 봅니다.

저 불이 밤이나 낮이나 켜져 있다면 '꺼진다, 켜진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멸이 없는 줄을 여러분의 자성불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본래 자성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체험을 하고, 구르고 구르며 피나는 경험을 쌓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세밀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생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청정이라는 것도, 더럽고 깨끗한 것이 귀합돼서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면서 사량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사는 처지가 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여러분은 백지장 한 장 사이, 한 찰나에 알 수 있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발을 해서 문화 문명으로나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전이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화두 수행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계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마음이 넓어진 데다가 과학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은 벌써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는 건너뛰어라 이거지요. 알고 있는 건 건너뛰어라! 하나와 하나가 딱 맞아서 돌아가야 곡식이라도 갈 수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면 어떻게 물질이 갈려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신력으로는 벌써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수행을 옛날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된다 이거죠. 이거

☞ 22면으로 계속



악도 선도 다 근본에다 놓고 다시 거기에서 생산해서 써라

☞ 21면에서 계속

는 너무 크고 이거는 너무 작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알고 있죠. 지금 수행하는 시점에서도 벌써 짐작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 뭣고, 이놈이 뭣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한테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도, 벌써 백 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공이 없이 돌아가서 빛보다 더 빠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잡이도 어리석어서 뛰어넘을 줄 모르는 데다가 그런 길잡이에 딸려 가는 사람들도 모두 장님이고 귀머거리라면 어떻게 앞으로, 정말이지 마음의 인등을 켜고 밤과 낮이 없이 밝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남들까지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와 자기 가정, 자기 조상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공부해 가지고도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을 건질 수가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걸 건진다 안 건진다를 떠나서 자기란 말입니다. 우선 요 몸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기와 둘이 아닌 까닭에 자기 생각 하나에 의해 수십억 마리의 자기 중생들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도 자기가 아차 잘못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차 잘못 생각하기 이전에 또 바깥으로 미신처럼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깥으로 찾는다면 임시적인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덕은 이룰 수 없죠.

또 한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바깥으로 찾아서 그 의식 자체, 이미지에 단편적이고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너무 쌓여서 뭉쳐지면 거기에선 악의 존재밖엔 안 나옵니다. 악의 존재에 따라 수억 마리로 번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이지 무서운 도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벌을 받든 안 받든 물질 하나에만 한정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가 헤아릴 수 없이 이 세상을 다 덮을 수도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다 좀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 이 자체가 그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묘한 거고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 없는 그 마음이 그렇게 악의 존재를 풀 수도 있고 선의 존재를 풀 수도 있습니다. 무한의 그 진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그저 우리가 수행할 때는 악을 버리고 선으로써, 또 우리가 마음을 깨달을 땐 악과 선을 다 놓고 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조막대기만한 나라에서 산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한자리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자리가 조그맣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가 작다고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고 몸뚱이가 크다고 인간이라는 법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마음의 도리, 한마음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공' 하면 이름은 주인공이지만 뜻으로 벌써 삼천대천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마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상, 부처, 중생 모두, 풀잎 하나, 애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이 평등 진리의 근본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진짜로 믿을 때에 바로 주인공 속에 일체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배를 해도 만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 배를 해도 일 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 배를 해도 백팔 배가 되고 삼 배를 해도 삼만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일 배도 없으니 어디 가서 찾느냐? 일 배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찾을 때에 바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 배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할 때에 "모두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 배 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엔 없죠, 너무 가까워서. 여러분이 저기 법당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둘이 되죠. 꼭 법당에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전에 어느 스님께서 화장실에 갈 때는 가사 장삼은 물론이거니와 두루마기를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따르면서도 나는 오지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죠. '내가 변소에 가더라도 부처가 거기 있는 거고…, 허허허, 더럽고 깨끗하고가 어딨어? 내가 지금 용변 보러 가면 거기 부처가 용변을 보고 있는 거지.' 속으로 이러면서도 어른의 말씀을 거역 안 하고, 또 형님의 말씀을 거역 안 하고 깍듯이 받들었죠. 그쪽에서 모르든지 알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 공부하는 데는 그 사람이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또 그 사람이 깨쳤고 안 깨쳤고가 나하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나왔으니까 오직 전체와 함께 무의 법, 유의 법을 같이 동등하게 해 나가도록 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둘 아닌 자비의 행, 참선의 행을 하며 그대로 행선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굳혀야 하는 거지, 남이 잘하든 우리가 무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의 뜻을 깍듯이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이 그토록 진하죠.

왜냐하면 나를 다지기 위해서 저 몸뚱이를 빌려 가지고 나에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누가 나를 때렸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리게 했으니, 그 사람을 괜히 수고하게 만들었으니 더욱 미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더라도 '아하, 감사하구나.' 또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도 '아유, 감사하구나. 이것이 바로 저 몸을 빌려서 수고롭게 하니 내 이거 미안해서 견딜 수 있나. 참, 주인공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고가 없으니 모두가 자비요, 지혜요, 바로 사랑인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 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으로 결집해 놓은 것은 부처님께서 그때 시절의 방편을 써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방편은 지금 시대의 방편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나는 경전은 못 봤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내가 이 방편을 쓰는 거는 현시점에서 돌아가는 대로 맞춰서 쓴 것이니, 이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서 돌아갈 때는 다시금 그 시대에 맞게끔 방편을 바꿔 써도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그 뜻, 깨달아서 말씀하신 자유인의 그 뜻이 너무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똥을 누었다면 밑을 안 씻을 이치가 없어요. 똥을 누는 대로 그분이 밑을 씻고 일어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믿고.

내가 그전에 할 말이 없어서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 날더러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나면 얘기가 나오고 만나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참 묘하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 **우리의 마음 하나가 헤아릴 수 없이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가 하면**
> **이 세상을 다 좀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마음 이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 **그러면서도 묘하고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해 드리듯이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해 놓고 사세요. 잘되는 것도 거기 못되는 것도 거긴데, 잘되는 것도 금방 돌아가고 못되는 것도 금방 돌아가니 어디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공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잘됐으면 잘된 대로 감사하고, 안됐으면 안된 대로 거기서 또 잘돼서 금방 돌아가니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것뿐이라. 그런데 뭐가, 뭐가 잘못돼서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엊그저께 스님네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계율, 이런 거 생각해 본 예가 없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나 하나 죽으면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죽는다는 건 아주 극치적인 얘기입니다. 죽었다 할 때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무섭고 두려운 거, 누가 뜯어 먹을까 봐, 무슨 귀신이 나올까 봐, 내가 뭐, 병이 들까 봐, 이런 것은 다 나 하나가 죽으면 붙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로 믿는데 어찌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가루가 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것도 걸리지 않을 때, 내 몸이 죽는 것도 걸리지 않을 때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치 그냥 죽고 사는 것도 다, 거기를 믿어 버리는데 뭐가 거기 붙습니까? 아픈 거, 뭐, 이런 것이 어디에 붙습니까?

그런데 야유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발발발발 떨고 하는 데는 착착 더 붙어요. 그런데 '허, 그런 거 붙거나 말거나다.' 이럴 때는 심심해서도 안 붙어요. 심심한데 그게 붙습니까? 재미있어야 붙지. 하하하. 아등바등하고 그래야 붙는 건데,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이따 죽으나 더 이따 죽으나 그냥, 그저 너나나나 뭐, 다 그냥…. '나'가 죽는데 뭐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붙어 봤자 심심해요. 그리고 여기 붙어 봤자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성가시게 할 수도 없고 나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싱긋이 웃고 말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 물질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마는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또한 내 몸이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보신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보신이 따로 있나? 십대 제자도 내가 가지고 있지, 오방신장도 내가 가지고 있지, 호법신장도 내가 가지고 있지, 화신도 가지고 있지, 뭐,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전성이나 영계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탁 밀치면서 '야, 내 말을 들으려면 들어오고 내 말을 안 들으려면 들어오지 마라!' 이럭하고서는 탁 잡으면, 붙기만 하면 다 그냥 하나로 요리가 돼 버리니 그거 또한 묘한 법이라.

그러니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데 '선과 악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닷물을 다 삼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무 욕심이 많았죠. 나부터도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욕심을 내려면 그런 욕심을 내세요. 왜? 내가 아무리 선을 추구해서 선을 닦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디쯤 가다가 보면 악도 범해요.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악을 또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 윤회에 말려서 사생 속에서 좌천이 되거나 승진이 되어 돌아가면서 윤회에 끄달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휘달리겠어요.

그러니 선도 놓고 악도 놓으면, 악도 모으지 않고 선도 모으지 않는 거죠. 한 찰나예요. 선도 한 찰나요 악도 한 찰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한 찰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전대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악도 한 찰나고 선도 한 찰나인데 운전할 때는 그저 악도 선도 다 놓고선 다시 거기서 생산해서 써라 이거죠.

용광로에 별별 쇠가 다 들어가지만 녹아서 다시 넓적하게 네모반듯한 철판으로 턱하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라서 그냥 생산을 해서 써라 이거예요, 굴려서. 그러니 이것저것에 다 끄달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초적인 거는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세요.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좀 아시겠죠?

참, 요거 한마디 하고 갈까요, 또? 내가 한 소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린애를 낳아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야 어른이 되죠. 그렇듯이 내가 나를 낳고도, 터득을 했다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건 발견한 게 아닙니다. 키워져야 발견했다는 뜻이 나오죠. 근본 자체, 그 참자기를 발견했을 때는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스승은 수억겁을 거쳐 나와서 경험이 많아요.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려니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7월 10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죽음마저 불평등한 사회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인도인들 평생 소원, 갠지즈강서 火葬
부자, 빈자 모두 죽을 땐 같아 보이나
존엄한 죽음은 자본의 유무로 나뉘어
계급 낮은 빈자는 강가에도 못 간다

한국 역시 빈곤 고독사 사회문제 대두
가난과 질병 인한 가족 동반자살 발생
내 안락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얻는 것
안타까운 죽음에 겸손을, 자비를 품자

인도인들은 평생 소원이 바라나시의 갠지스강에 들어가 목욕하고, 강물을 마시는 일이다. 또 하나는 죽음에 임박해 갠지스강변에서 죽어 그곳 화장터에서 화장된 뒤에 재가 갠지스강에 뿌려지는 것을 소원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죄업이 씻기어 다시는 고통의 사바세계에 오지 않는다고 여긴다. 인도인들에게 갠지스강은 '어머니의 강(Ganga mata ji)'이라고 하여 갠지스강 자체를 신격화하고 있다. 인도인들의 영혼이 숨 쉬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하면서 다수(多數)를 표현할 때, '갠지스강 모래'에 비유하셨다.

10년 전, 갠지스강가에서 수많은 시체들이 갠지스강변으로 들어와 화장하는 것을 보았다. 생사(生死)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인생의 가치 개념을 사유했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방송에서 인도의 갠지스강변의 화장터를 보여주었는데, 방송의 패널(panel)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

"결국에는 부자였던 사람이든, 가난했던 사람이든 갈 때는 다 똑같다."

인간이 생전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것인데, 필자는 그 말에 공감되지 않는다. 부처님도 생로병사의 고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듯 인간의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런데 물리적인 인생 4고는 누구에게나 똑같을지 모르지만, 존엄한 죽음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인구를 자랑하며, IT업계 인재를 배출하는 인도! 그러나 카스트(caste)계급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웃카스트(out-caste)의 인권 문제는 세계에서 최하위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가난과 불평등으로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죽는다. 이들은 죽을 때가 되어 갠지스강까지 와서 화장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유가족이 돈이 부족해 시체를 완전하게 화장할 만큼 나무를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계급이 낮은 이들이나 가난한 이들은 갠지스강에 와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인도인들의 사고로, 어머니의 강에 와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끝없는 번뇌 속에서 윤회한다.

인류 역사에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평등이 이뤄진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다. '모두가 공평히 부를 누리자' 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역시 갠지스강가의 죽음과 같은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근자 젊은 청년이 고시원에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일이 지나서 발견되고, 그가 남긴 글귀에는 온통 취업에 대한 걱정이다. 노년 고독사는 더더욱 안타깝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연명하다 죽음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홀로 쓸쓸이 이생을 떠난다. 가장 슬픈 일은 가난과 질병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이다.

생로병사는 모든 중생에게 똑같지만, 경제적인 부에 따라 죽어서도 차별 받는다. 잘 죽는 죽음(well-dying),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죽음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필자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죽어가면서 얼마나 한을 품고 이생을 떠났겠는가? 그렇다고 사회 약자를 위한 시스템에 문제있다고 오롯이 국가만 탓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따뜻한 밥에 따뜻한 잠자리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어느 누군가의 차디찬 잠자리에 눈물 젖은 빵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군가는 길바닥에서 동사하는 이들이 있다. 내가 경험하는 편리함과 안락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돌게 하는 노동력과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겸손하자.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좀 나눠주며 살자!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영천사지와 예기소

비가 참 많이도 오는 장마다. 이때가 되면 제주는 더욱 아름다운 섬이 된다. 건천으로 말라 있던 하천들이 한라산 정상으로부터 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한 줄기, 돈내코 원앙폭포로부터 바다로 흘러 쇠소깍에 이르는 효돈천의 풍광은 더욱 그럴싸하다.

효돈천의 옛 이름은 영천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를 보면 '영천천(靈泉川)'으로 돼 있는데, 조선 말기 〈조선지형도〉에는 '효돈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영천천의 이름은 사찰명에 유래해서 불리다가 조선 중후기 불교의 흔적을 지우는 일환으로 그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영천사 터는 영천오름 서쪽의 효돈천과 인접한 하천 대지상에 자리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의 정의현 불우조에는 '영천사는 천 동쪽 언덕에 있는데, 영천관과 동서로 서로 마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제주목사 김흠조에 의해 1525년(중종 20)에는 정의현성을 옮길 후보지로 영천관 일대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처럼 영천사 주변은 당시 제주의 동남쪽 지역을 관리하는 정의현의 행정관할에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와 위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동여비고〉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영천사가 언제 폐사됐는지 알 수 없다.

영천사지 서쪽 둔덕 바위에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나암(觀儺岩)'이라는 마애명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영천사에서 행해지던 불교의식인 나례(儺禮)를 구경하던 장소로 추정된다. 나례는 승려들이 주도해 섣달그믐날 가면을 쓰고 주문을 외면서 귀신을 쫓는 춤을 춰서 잡귀를 몰아내던 의식이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점차 나례에서 역병을 구하는 의식보다 놀이의 잡희부가 확대되면서, 나례가 나희(儺戲)로 변모되었다.

김석익의 〈탐라기년〉을 보면, 세조 12년 1466년 절제사 이유의가 절 맞은편에 영천관을 짓고 마필을 점검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점마사(點馬司)들이 오면 국마로서 많은 말이 뽑히게 하려고 기생이나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환대하였다. 이는 영천동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런 일정이었다. 영천사지에서 조금 내려가면 가락산과 영천악 사이에 절벽이 있는 좁은 냇목이 있다. 관리들은 이 절벽에 외나무다리나 밧줄을 메어 그 위에서 아슬아슬 춤을 추게 하여 흥을 돋우며 즐기곤 했다. 이와 관련된 '예기소(藝妓沼)'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 온다.

어느 날 애향이라는 기녀와 일행들이 불려와 기예를 하다가, 애향이 그만 깊은 계곡에 떨어져 죽었다. 그 한으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장대비가 사흘 밤낮을 퍼부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진혼제를 지내고 극락왕생을 빌어주며 그 시신을 영천악 남측기슭에 묻어주니, 비로소 비가 그쳤다. 그 후로 애향이 떨어진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소(沼)가 생겼고, 그녀의 기일에는 느닷없이 비가 오고 돌풍이 이는 일이 많았다. 그 후로 관리들의 향연인 나희는 금지됐고, 사람들은 여길 '예기소'라고 불렀다.

영천천의 사연이 세월에 건천이 되어도/ 달빛 한 줄기 바람결에 내려오면 님들의 넋들은 비무(悲舞)를 시작하고/ 영천오름 꾀꼬리의 긴 울음, 그날의 한(恨) 바위에 새기던 스님의 징 소리라네/ 그대 잊지 않기를, 하염없는 장맛비가 영천을 따라 굽이쳐 흐르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부쳐

6월 23~27일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일대에서 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세계 여성불자 3000여 명이 참가한 대회는 다방면에서 한국불교 비구니승단과 여성불자들의 단결된 힘을 세계에 알리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회는 규모면에서 역대 최대로 기록됐다. 외국인 참가자 600여 명을 포함해 30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많은 인원 참석에 따른 식사와 숙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음에도 한국 비구니승가의 꼼꼼한 기획과 여성불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큰 문제없이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다.

이번 대회가 뜻깊었던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됐다는 점이다. 대회 참가자 모두는 행사장에서 일체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 모습을 보였다. 환경을 생각하는 거리 운동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반환경적인 업을 참회하고, 얼마나 환경에 대해 무심해 왔는지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마지막 날 폐막식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2040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소욕지족과 친환경적 삶 구현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류가 직면한 위협 앞에서 여성불자들의 깨어있는 지혜와 실천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이번 샤카디타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준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 코리아에 큰 박수를 보낸다.

태고종 외연 확대 기대한다

2015년 내홍으로 얼룩진 분규사태와 53억 원에 달하는 종단관련 부채로 인해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암흑기를 보낸 태고종. 각고의 노력 끝에 부채를 상환 · 탕감하고 2019년 27대 총무원장으로 호명 스님이 취임하면서 태고종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4년 동안 종단 안정화의 기반을 다진 호명 스님에 이어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지난달 27일 임기를 시작했다. 스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외연 확대는 종단 위상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새로 임명한 부 · 실장단에 대사회 사업과 종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주문했다.

전국 3400여 사찰과 25개 교구, 5대 본사로 이뤄진 태고종은 종단 규모 면에서 대한불교조계종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앙집권형이 아닌 개별 사찰 중심으로 종단이 운영돼 늘 구심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분규사태 당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회비를 미납하면서 종단 의전서열이 2위에서 5위까지 밀려나는 수모도 겪었다.

태고종도가 새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거는 기대는 종단의 과거 위상을 되찾는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진 스님은 "종도 스스로 태고종도라는 걸 자각하고 발전의 주체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진 스님이 종단 운영 기조로 강조한 공심(公心). 이웃종단 대표들을 만나 "그동안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태고종이 불교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힌 사과와 각오에는 스님 개인 원력뿐만이 아닌 1만 태고종도의 염원도 깃든 것으로 보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